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木)

伊軍用船續續出港
戰爭氣分益濃厚
武器彈藥滿載코나폴리出港
在『에』英人에撤退命令

【電通나폴리二十八日發】 二十八日 伊太利汽船 四隻은 武器彈藥을 滿載하고 東阿로向하야 當地를出港하엿다 그리고 汽船리야나號는 二十八日夜 軍馬와軍需品을 滿載하고出港 二十九日은 汽船도론보號가 二千五百의 黑샤쓰隊員을 태우고 英國公使가 在留英人에 對하야 撤回命令은아니고 出發可能한者는 全部 出發하도록 慫慂한事實에 依한것이라고 解釋된다

【電通倫敦廿八日發】 지부티港으로부터온 報道에 依하면 에디오피아 在住英國人은 四日以內로 에디오피아國으로부터 撤回命令을 受하엿다한다 右에關하야 當地官邊에서는 이러한 事實이 업다고 否定하나 그眞相은 에디오피아 駐箚出發할豫定인데 伊太利의 戰爭氣分은 더욱濃厚하게 되엿다

阿洲大陸政策을 伊全閣僚確認
聯盟에長文의覺書提出決定
伊首相、緊急會議召集코

【볼차노二十八日發聯合】 뭇솔리니首相은 二十八日午前 볼차노市의 大演習統監部에 緊急會議를 招集 聯盟理事會를압두고 國際外交戰에 臨할 方策及 에디오피아國討伐의根本方式을 審議하엿다 全閣僚는 모도 正規將兵으로 大演習에 參加하엿는데 軍服으로 前線으로부터歸還하야 森嚴한雰圍氣裡에 國策審議에入하엿다 뭇솔리니首相으로부터 巴里三國會商及 事後의 外交的折衝經過를報告하고 國防對策에對하야 縷縷開陳한바 各閣僚는 모도所管事項에 對하야 所見을述하고 審議數時間後 閣僚는뭇솔리니首相의 阿弗利加大陸政策을 全的으로確認하엿다 閣議後書記官長은 左의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伊太利政府는 二十八日 볼차노市에서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內治外交政策을 審議한結果 뭇솔리니首相의 阿洲政策을 完全히 支持하기로決定하엿다 政府는 來九月四日부터 聯盟理事會에서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 自國의立場을 闡明하고 伊에兩國間의 歷史的關係에 對하야 長文의覺書를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다 聯盟規約에 揭載한 制裁規定을 適用하는結果는 國際政局에 極히 重大한 紛糾를 誘致할 憂慮가잇는바 各國政府는 이點에 對하야 어데까지 愼重 考慮를 加하기를 期望한다 聯盟理事會에 잇서서는 一群의責任잇는 政治家가 나와 반드시 이現實을 明確히 把握하야 制裁規定과 如한 無實且危險한 方策을 一顧할줄로確信한다 閣議席上에서 뭇솔리니首相은 特히 에디오피아國에對한 伊太利政府의 政策에對하야 英國政府는 何等 念慮할 必要가 업다는것을 宣言하엿다 英伊兩國間의 協力은 歐洲政局安定을 確保하는데 重要함은 疑心을 품지 안는다 過去에잇서 兩國政府는 完全한 協力을 實現하여왓스나 伊太利政府로서는 英國政府와의間에 不和를 招來할것을 絶對로 希望하지안는다는것을 玆에 言明한다 (寫眞은 뭇首相)

伊에戰爭勃發時의 海峽問題를協議
이든氏西大使와會見

【電通倫敦二十八日發】 이든無任所相은 二十八日 英國外務省에서 駐英西班牙大使라몬페레스氏와 會見하고 무엇을協議하엿는데 傳하는바에 依하면 이든無任所相은 伊에戰爭이 勃發될境遇 지부랄타海峽에對하야 如何한立場을 取하겟는냐는等에 重要問題에 對하야 페레스大使와 種種協議를 遂하엿다한다 그리고 페레스大使에 뒤니여 駐英濠洲高等辦務官 블루스氏가 外務省을 訪問하엿는데 右는伊에紛爭에對한 英自治領이 取할態度等에對하야 妥協을 遂하기爲함이라한다 (寫眞은 이든氏)

對英若干軟化

【볼차노廿八日發聯合】 볼차노大演習統監部에서 全閣僚出席下에 열린 重大閣議에서 뭇솔리니首相의 아프리카大陸政策은 全閣僚의 全的支持를 受하엿는데 뭇솔리니首相의 方針은 어데까지 旣定計劃을 斷行할려이나 阿洲大陸에잇서서 軍事行動에 從事할 時에도 英國政府의 旣得權은 어데까지 尊重한다는데잇는바 英國政府에 對하야 자못軟化케 되엿다

大藏省의態度에 海軍當局不滿
公債政策其他에對하야見解相異
豫算編成難에陷入

【東京電話聯合】 海軍明年度豫算編成에 關한 大藏 海軍兩當局의 會談은 二十八日로써 各編成方針의 說明을終了하엿슴으로 마츰내 近近數字的으로 本格的折衝에 入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兩當局의 再次會談의結果에 徵하드라도 兩當局의 態度는 昨年보담도 더 深刻함으로 雙方이 强硬한態度를 堅持할것은 明瞭한바 今日事務的折衝의 解決은 到底히 困難하리라는 豫想을가게되는데 海軍側의 態度는 國防第一主義下에 그要求의 全面的達成에 萬全을期하고잇는만큼 大藏當局의編成方針에 關하야 多大한不滿을 나리내고잇다 또 大藏當局의 公債政策 其他에關하야 相當한異見을 갓고 非常時國防充實策에 伴하는 財政的見解에 關하야

一、軍事費를 곳不生産的이라고 判斷하는이가 잇스나 不經濟的生産이 조흔지 經濟的不生産이 조흔지를 判斷하면 後者가 멀리 有益하다고하지안흘수업다 軍事費以外의 全部를 生産的이라고하면 米穀統制節約費 市町村補助費와 如한것은 明白히 不經濟的이요 海軍의 水路費와 如한것의 利用價値는 海軍 그自體보담도차라리 民衆的의것으로 經濟的이다

一、高橋藏相이 過般 海軍費를 土木費와는 全然性質을 달리한 性質의것이라는 말을하나 海軍費는 外國貿易上 一大道路의 役割을하는것으로 外國貿易의 進展向上은 厥然한 海軍의 背景이업시는 絶對不可能하다

一、國防은 軍備만으로서 足한것은 아니다 軍備와 同時에 財政經濟의 健全에 依存치안흐면 안된다 軍部豫算의 增大化로서 財政經濟를 危殆에 瀕케하는것이라고 말하는이가잇스나 海軍費는 最少限度를 要求하고잇슴으로 決코過大한것은아니다 今年度豫算에對하야 보드라도 一般會計의 比例는 二割四分으로 이程度의 比例는 過去에잇서서도 屢屢하야 明治三十年에는 三割三分에 該當한일도아니다 大藏當局이 赤字公債發行增額을 憂慮하고잇스나 敢히 赤字公債發行에依하지안트라도 滿洲事件費 一般補助費 其他各方面에 亘하야 아직減額할餘地는업는가 또 繰入金或은自然增收等을 適宜하게 按配할方法은 업는가 이것을 再檢討하면 非常時突破에 要할海軍費와 如한것은 容易하게 支出할수 잇슬것이다 大藏當局의 態度如何에 依하야 數字的根據를 表示하야 一般財政經濟의 內面까지批判할 意向을갓고잇다

中立維持法案에
米大統領署名決意言明

【電通華盛頓廿八日】 루즈벨트大統領은 議會가 掉尾에 急速可決한 參戰防止中立維持法案에對하야 二十八日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中立維持法案은 余가 希望하는바와 얼마큼趣旨를 달리하고特히 反戰國에對한 財政的援助에對하야 大統領에게 廣汎한 自由裁量의 權限을 賦與치아니한 點은 不滿이나 그러나 大體로 有益한 規定이 만코 無用한戰爭에 加하는것을 避케하는데 貢獻이 만흐리라고 認定함으로余는 이에署名하기로 決意하엿다

聯盟理事會에臨할
佛國陣容整備

【電通巴里二十八日發】 佛國政府는 二十八日 閣議에서 九月聯盟會議代表로 라발 首相外에 에리오無任所相과 봉쿨氏의兩氏를 任命 副代表로 봄넷트商相 베라젤 바스테이드三氏를 任命하엿다 佛國이代表로 라발氏外에 에리오 봉쿨 二名의元首相兼外相配置한것은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 理事會를 重視하고 完璧의陣容을 整備키爲함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制裁斷行에反對
伊太利의聯盟脫退阻止키로
佛國閣議에서決定

【電通巴里二十八日發】 佛國政府는 二十八日 閣議를 開催하고 九月四日부터 開會하는 聯盟理事會에 對한 方針을 討議하엿는데 大體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一、伊太利에 對하여는 仲裁的態度를 取하야 制裁斷行에는 反對할것(聯盟會議 代表中에 左翼巨頭봉쿨氏를 參加식힌것은 今日까지 對伊制裁 强行을 極力主張하여온 左翼派諸新聞을制裁식히기 爲함이라고 解釋된다)

一、伊英의 正面衝突을 極力防止하기 爲하여는 뭇솔리니首相이 일즉英帝國의 權利를 尊重하라고 言明한點을强調利用할것

【巴里二十八日發聯合】 佛國政府는 二十八日午前 루브랑大統領司會下에 엘리제宮에서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聯盟理事會에 臨할 對策을 審議하엿다 理事會에 잇서서는 어데까지 制裁規定의 援用에 反對하고 伊太利政府의 聯盟脫退阻止에 細心努力을 拂하기로 決定하고 라발首相은 今回의伊太利軍의 行動을 殖民地遠征이라고看做하고 聯盟理事會에서 各國代表의 支持를要請할터인데 라발首相은 이미 以上의 方針에基하야 英國大使클라크氏와 折衝을繼續하고잇다 右政策에對해서는 聯盟理事會席上에서 자못反對가잇스리라고 豫期치안흘수업고 聯盟代表 봉·봉쿨氏外 파스시에드下院外交委員長 에리오無任所相을 起用한것도 이方針에서나온것이라고 觀測된다

經濟自給自足策과
緊急한對策決定
東阿問題의局地的性質强調等
伊重要閣議決定內容

【電通롬차노廿八日發】 伊太利全閣僚를 網羅한 重要閣議는午後七時부터 八時二十分까지 繼續되엿는데 이에뒤이여 主要閣僚가 殘留하야 協議하고 午後九時頃에 全部終了되엿는데 右會議에잇서서는 對에디오피아方策及 一般外交基礎方針外 經濟自給自足策 其他 多方面에 亘한 緊急對策을 決定하엿다 그內容은 左와如히 重要한 諸項을包含하엿다는것이 發表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東阿植民地問題가 局地的의것으로 歐洲情勢와 關聯이업다는것을 確信하고 이와다른見解가 存在하는것은 卽새로운 大戰爭의危險을 意味하는것이라고 解釋하고 此를排斥하는바이다

一、에디오피아에對한 伊太利政策은 英國의 利益을直接的으로나 亦間接的으로 何等脅威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確言하고 이에 完全諒解하도록努力하려함

一、伊太利 에디오피아紛爭에 關하야 一部에 對伊制裁論이存在하는것은 廣汎且 重大한國際的紛爭의發生을 意味하는것이라하야 政府는 가장遺憾으로하는바이다

一、政府는 九月四日에 열릴國際聯盟理事會에 代表를 派遣하야 伊太利의態度를 積極的으로 說明하야 從來의 그릇된 諸印象을綴述하야 伊太利의 眞意는東阿에잇서 安全保障의 確保를 期할 必要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을 明白히하고 이것이決코 聯盟精神에 抵觸되지안는行動이라는것을 各國에 理解케하기爲하야 最後의努力을拂할것

一、外國關係財政事項의 整理統制를 期하야 一切의對外크레디트의決濟 內外債의强制借替를行하야 在外伊太利債를 九

話題解說
米國勞働總同盟

米國政府가 콤인테른의 米國內赤化工作問題에 關聯하야 蘇聯政府에 抗議를 提出한것은 모처럼 修好關係를 맷진 兩國사이에 또다시 暗雲을이르키는 原因이되지안흘가 하는疑問을 가지게하는 이때에 米國內에 最大多數의 組合員을가진勞働總同盟會長 윌리암 그린氏는、이에 장단을 마치일 즘부터 그가 機會잇슬때마다反蘇的主張을 하여온것과가티 蘇聯承認取消를 政府에 提言하엿다。이것은 곳 勞働總同盟은 政府와 協調的인 右翼勞働組合으로서 콤인테른指導下의 米國共産黨系의 勞働組合乃至 그와 連絡關係를 맷는 I·W·W等 左翼的 勞働組合과對立된 關係에잇서서 그 勢力擴大上 蘇聯擁護의 左翼勞働組合을 排擊하려는 平素의 對立關係의 結果이다

◇

米國勞働總同盟 (American Federation of Labour)은 一八八一年에 組織된 職業勞働組合會의 後身으로서 初期에는 比較的急進的 傾向도잇섯스나 一八八六年 官僚勞働運動者의 首領으로 有名한 사무엘 곰퍼-스가 그 會長에 就任되야 一九二四年 그가죽을때까지 會長으로 歷任하야 御用的勞働組合이 되고마럿다 그뒤를이어 윌리암 그린氏가 그 뒤를이은後、그린氏의 勞働貴族으로서의 實業이 또한 實業家에 큰것은、다시 說明할 必要도 업다。

日中問題再檢討
廣田、蔣氏의會見으로
二十九日蔣大使歸任

【東京電話聯合】 歸國中의 蔣作賓中國大使는 二十九日 早朝神戶着 엠프레스·오브·루시아號로 歸任하기로되엿다 大使는來週廣田外相을 訪問하고 六月二十二日 廣田外相과의 會見에뒤이어 日中兩國의 一般國交關係調整에 關한重要懇談을 行하리라고 期待되여잇다 그리고 蔣大使는 去七月五日 歸任하기前에 日本朝野의對中第二工作方針을打診하고 本國으로 歸還하야 蔣汪兩巨頭와 廬山 南京兩會議에出席하야 政府首腦部의 對日根本問題에關한將來의態度에對하야 對日親善方針으로 邁進하는데 蔣汪兩氏로부터 全的信賴와 支持를 바더 日中兩國關係調整의 重大使命을 帶하고 歸任할터인바 近開催될廣田、蔣第二次會見에는 至大한 關心이쏠리여잇다 日本側의對中第二段工作에 關하여는 北中의 特殊地位인 그事實을 正當히 認識하고

一、南京政府는 日中提携의 具體的實現을爲하야 積極的으로 協力을 다할것

一、日中兩國은 東亞의安寧維持를 尊重하야 一切第三者의行動을 防遏할것 北中地域에關한 中國政府의 正常한 認識은 必然滿洲國의 承認問題에까지 具體化할것

日中提携의 緊密化는 東亞로主義確立에 到達할것으로 中國의 이에對한適應性如何가 當面의 重要問題이다

人事·集會

▲白南奎氏 光州聖世農道學院學監에就任、三十日午後十時五十分京城驛發赴任豫定

對蘇再應酬코저
米國務卿大統領과協議

【電通華盛頓二十八日發】 콤인테른赤化宣傳에關한對蘇抗議에 對하야 强硬한 反駁的回答을 蘇聯政府로부터 接受한 헐米國務長官은 二十八日 國務次官補무어、케래兩氏를 帶同하고 루즈벨트大統領을訪問 對策을 協議하엿는데 再次 對蘇應酬를할모양인바 協議終了後 무어氏는 左와 如히 말하엿다 對蘇方針은 今日에 至急히 決定치안흐면 안될 必要는업다 그리고 잘 協議를 遂한 後에 行動을 開始하는것이 可하다

松岡新總裁着任

【電通大連二十八日發】 新任滿鐵總裁松岡洋右氏는 官民代表及八田副總裁以下 多數의 滿鐵社員의歡迎裡에 藤井秘書帶同二十九日午前七時二十分 着任하엿다그리고 總裁는 三十日朝아지아號로新京에 向하야 南軍司令官과會見하고 新任인사를述하고 一日歸任할豫定이다

松岡新總裁의聲明書

【大連二十九日發聯合】 二十九日朝大連에上陸한 松岡滿鐵總裁는 談話의 形式으로 大要左와如한 聲明을 發表하엿다 今回는 最後의 奉仕를 遂行할 目的으로 來任하엿다 滿鐵總裁나 關東軍顧問도 나의 方針은 一切 白紙로 모도現地의 實情을 檢討한後에 決定하겟다 余의對滿中 認識은 事變前의것으로 事變後의 知識은 間接的임으로 現在나의 認識은 不徹底하고 不完全한줄로信하다 이機會에 斷言하여두거니와 自己가 是라고信치안는것은 如何한 問題 何人의 意見이라도 上御一人以外는 絶對服從치안흘 구든決意를갓고 關東軍顧問 滿鐵總裁로써 全責任을 다하려하는바이다

滿洲國觀艦式
九月九日擧行決定

【電通新京二十八日發】 滿洲國最初의觀艦式은 九月九日 哈爾賓松花江上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이觀艦式에 參列할 滿洲國의 艦艇은 御召艦定邊을 爲始하야 十五隻의 新銳砲艦으로 決定되엿다 皇帝陛下께서는 그前日八日早朝 宮廷府御出門御召列車로 張總理 熙宮內府 于軍政各大臣、田邊參議以下 各參議 長岡總務廳長等 滿洲國軍部百官과 日本側으로부터 南關東軍司令官 高木軍政部 最高顧問等을 거느리시고 哈爾賓으로行幸하시와觀艦式을 御親閱하시기로되엿다

政務整理委員會廢止
軍事最高機關設置
國民政府에서正式으로撤廢命令到着

【電通北平二十九日發至急報】 確聞하면 汪精衛、王克敏兩氏가 協議한結果 北中의 日中關係가 益益重大化하는데 鑑하야 政務整理委員會를 撤廢하고 새로 北中五省의 軍事政治를 統率할 强力한 最高機關을 設置 하기로 決定하엿다

【電通北平二十九日發至急報】 國民政府로부터 二十九日朝 政務整理委員會에 最短期間內에 同委員會를 撤廢하라는 旨의 正式命令이 到着하엿다 王克敏氏는 二十九日朝 歸平後 卽時 撤廢準備에 着手하엿는데 同委員會職員은 거이 新機關에 留任될터이다

南京政府
伊將校顧問更迭
北中日中關係重大化로

【東京電話聯合】 二十八日 確實한側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伊太利政府는 伊에 紛爭으로해서 南京政府의 空軍陣容의 强化를 目標로 南京政府顧問主班 로딩少將을 東阿空軍司令에 任命하야 로딩少將은 뭇솔리니首相의 訓電에 따라 二十五日 西伯利亞經由 急遽歸國하엿는데 後任으로는 駐米大使館附 武官스칼퀴大佐가 目下 伊太利政府로부터 蔣介石氏에게 推薦된 모양으로 伊飛行機를 回送하기爲하야 多幸히 中國滯在中임을 好機로推薦하기로決定하엿다는 旨를 蔣介石氏에게通告한 事實이잇고 同時에 뭇솔리니首相은 伊太利政府가 伊에紛爭의 經緯如何에 不拘하고 中國空軍强化援助에 關하야 最善의 協力을 다하겟다는 旨를 通告한것은 時節이 時節이라 注目되고잇다

八面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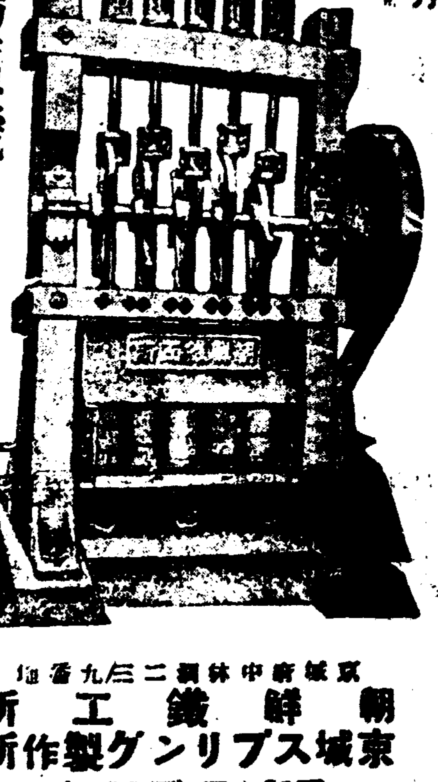
◇ 메네리크前帝의 準備秘藏했든 武器와彈藥으로 『에디오피아』軍隊가 戰鬪準備。

◇ 싸워서 敗할지라도 國民의安危를 死後까지 念慮하신 聖主의 深謀遠慮가 感激하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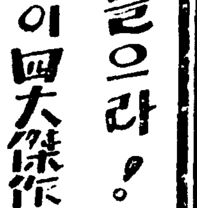
◇ 陸軍의손에 蒐集된『怪文書』가 百여하고도 數十種。

◇ 『怪』라함은 平凡을떠난意味 따라서 『稀』와 通하기 쉬운것이어늘。이러케 만흠이 또한『怪』。

◇ 鐘路大街의 騷音을 업시하기爲하야 擴聲裝置를 關東署에서 取締。放送局에서는 禁하고 警察署에서는 禁한다면 그야말로鐘路네거리에 엉켜 주장할노릇。

新發明 鑛山
發條搗鑛機 (型錄進呈)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電話本局(三)四三六八番

藥劑師採用
免許狀잇는분을 採用하오니 履歷書持參來談하시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五) 神崎神聖堂


이때大傑作盤!!
蔡奎燁傑作盤
들으라!
순풍에돗달고
아득한千里길
놓쓰른미티
외로운길손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當選謝禮
定平郡學校評議會員 廣德面 元東郁

寸虫藥 新發明 特許
萬花堂 電話光二〇九三番

結婚 今般萬花堂에서大擴張키爲하야百年佳約의結婚式場을新築中이고로落成前新婚具를一個月동안廉價로提供하겟사오니紳士淑女諸氏는一次枉臨하심을仰望하나이다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四

●新學期開始 ●中等科第一部 ●中等科第二部
九月十五日(第一類甲組)學則二錢切手
各中等學校入學準備 各中等學校上級編入受驗及鐵道從業員養成所遞信官吏養成所受驗準備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校舍大擴張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五日
◇學則要二錢切手校舍運動場敷地二千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電本二一六〇番)

神秘丹
肓腸病 大王藥
藥價 1.00 1.20 2.50 3.00 5.00
製造本舖 大邱景春堂藥房
振替口座京城 三二五番
京城府義州通一ノ三
一手販賣 三中洋行
振替京城二三四番

九月新學期生徒募集
中學卒業의近道—中學三四年에編入
普校卒業生은! 明春三月中學三年에
高習一年修了生은! 明春三月中學四年에 準備完了
專檢資格·普校卒業은一個年半으로獲得
●數學部(中學一年組、二年組 各三ケ月修了)
●英語部(三年組、四五年組 各三ケ月修了)
●理化學部(初級組、上級組 各三ケ月修了)
●國漢部(一二年組、三四年組、上級組 各三ケ月修了)
●綜合高等受驗科(英·數·國漢·綜合)
●單科高等受驗科(英·數·國漢·理化·各科)
高等受驗의準備는六月부터
高校에、醫科方面에、工業方面에
商業方面、農業方面에、合理的指導
研數學館 東京神田·西神田一丁目 電話九段八〇九·八一七
午前部 午後部 夜間部

謹告
來八月三十一日(土曜日)은 弊社決算日이므로 休業하오니 未安하오나 널리容恕하심을 伏願하옵나이다。
追而八月三十日은決算準備로 午後七時에閉店하겟사오니 以此諒察하시옵소서
昭和十年八月二十九日
京城鍾路 株式會社 和信

八月三十一日낮부터特別興行
每日三回 正午十二時、三時、午八時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조셉폰스탄바크=監督
모록코
마-레네 데이트리히 게리 쿠퍼 아돌프 만쥬 共演
原版으로부터새로히燒製이된모록코!!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로마구란드=監督
喜劇 가보자에成功
W·C 후일르스=主演
=次週映畵=
仁寺洞 電話光二〇〇 朝鮮劇場

朝鮮映畵
銀河에흐르는情熱
原作脚色監督=安鍾和、撮影=李明雨、出演=李源鎔、李應善、沈影、朴齊行、申一仙、柳新芳

八月卅日부터
每日 午前十一時 午後二時、七時
二大名作公開!! 秋期第一週
◆MGM超特作日本版 名匠W·S반다이크監督
男子의世界
크라그、께불、윌리암포엘마나、로이三大名星競演
굿세인男性의友情이다、剛毅한男兒의눈물이다、激烈한男性同志의殉情이다、滿都人士의熱淚도誘沈하리라!아아名篇
◆푼니아유니버살超大作日本版
께사、폰파-리監督
봄의파레-드
항가리아가처음發表한驚嘆할名作品 歐洲의明星푸란츠이가、카알得意의獨擅場! 壯大豪華、노래와춤

團成社
八月二十七日밤부터 (二十七日、二十八日)
◇新舞臺公演! 第一週
◇李雲芳作 悲劇 妓生 全一幕
◇林仙圭作 支那劇 두집히는黃河 全三場
八月二十九日밤부터 第二週 最終프로 (二十九日、三十日)
◇白 悲劇 朝鮮의어머니 全四幕

博士の子 (次週特別封切)
(1)熱笑大勝利、(2)江건너마을、(3)메리위도우、(4)椿姬、(5)빗나는눈동자、流線型超特急、(6)森繁香傳
◆JO太秦全發聲映畵

桃花劇場 桃花洞 電話 一三二
(男子部) 革新新舞臺의最高喝采! 卞基鍾、李敬雪、宋海天、權一晴、河正淵、朴樹松、黃澈、朴銀波、朴齊行、沈影、金道日、卜元圭、金松天、崔大鍾、朴聰彬、紅關花、方龍汀、朴演祥、趙鏞錄、李在吉、朴承山、尹之男、李王現、文東一、韓旭東、嚴載桂、明、李準榮、權五燮、金駿郁、朴承圭、洪錫仁、金一天、吉、姜學勉
(女子部) 羅品心、池京順、金愛順、金富林、吳明心、朴花順、朴英女、康海仙、劉貞玉、申一仙、徐玉汀

染病巷化한大京城
前年發生數의四倍
近日一層猖獗、昨日도廿數名
九、十月이一層可慮

전염병유행으로 근년에 그래를 볼수업는 금년은 추풍이돌면서도 그만연은 여전하야 조금도 끄칠줄을 몰라서 이십팔일에는 이십일명의 새환자를보엿다

이제 지난일일이래로 작이십팔일까지의 전염병상황을 루계를 보면 총발생수가 일천칠백팔십명으로 그중사망자가 이백륙십사명이나된다 그리하야 전발생수에비하야 사상자가 일할이상이되는 무서운 현상을 보이고잇다 그중에 우심한것은 장질부사의발생 칠백칠십명이고 그중의사망자일백이십명이 수위이어서 사망률이 일할오분이나되는 고률(高率)을 보여주고잇다 그외에는 류행성뇌막염이 구십구명의 발생자중에 사망자오십팔명이고 적리가 삼백사십삼명의 발생에 삼십일명이 사망하얏고 지프테리아는 발생이 백이십사인에 사망자가 삼십사인이며 기타 약간이다

다시이것을 작년동긔에 비하면 장질부사는 발생과사망이 놀라울게도 사배가 올라갓고 기타 총수로도 륙백명의격증인데 장질부사등은 년래의 통계로보아 구시월이 가장류행에 적당한시긔이므로 경성부 위생과에서는 이에 더욱방비코자 노력중이다

關釜間連絡船
今朝에도또缺航
昨日은艱辛히出航하엿스나
夜發부터復舊豫定

이십칠일밤부터 태풍(颱風)의영향을받은 폭풍으로 관부련락(關釜連絡船)이 세번왕복의 결항을 보게되엿든바 작이십팔일밤도여전히 태풍이 격심함을 무릅쓰고 오후열시반 하관(下關)으로부터 제칠편(第七便)이 출범하엿다가 위험함으로 도중에서도라가고 동열시반 부산출범의제팔편(第八便)은 정각에 출범하야 간신히 금이십구일 아츰에 하관(下關)에 다엇다 그러나이십구일 아츰도 폭풍이 심하야 오전열한시 하관출범의 제일편과 밋동열한시반 부산출범의제이편은 모다대기중에잇다 그리고 부산에는 련락선이 닷지안헛슴으로 이십구일 오전일곱시 부산발 경성행의 림시급행제팔호렬차는 운전을 휴지하엿다 철도국에서는 이두배의 입항되는대로 림시렬차를 운전하야려객수송의 편의를 도모코자 수배중이다 그리고 복선을이십구일오전열한시반에 출범한 련락선은 배선이업기때문에 결항하고 이십구일밤부터 평상대로복구되리라한다

德壽、昌慶丸
今午後에入港
今夜列車에連絡식히어
零時五十分京城着

이십팔일밤에 륙련도(六連島)에 피난중이든 덕수환(德壽丸)과창경환(昌慶丸)의 두련락선은 이십구일오후세시와 세시반에 부산에입항하므로 철도국에서는 이것을 련락식이기위하야 오후네시이십분에 부산잔교발 삼십일 오전령시오십분 경성착의 림시 제일칠구백일호렬차를 운전하야 려객을 수송하리라한다

◇秋色이 깃드린 古宮 …石造殿에서…

男便의午食에
置毒한女子

충남부여군 남면송학리(扶餘郡南面松鶴里)정월교(鄭月姣)의 안해신진우(申辰雨)라는 열여덟살 먹은 녀자는 이십팔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삼년의 판결을바닷다 그는작년일월에 정월교와 결혼하야가리 살아오든중 어쩌엿인지 신진간지 얼마안되여서 남편과 한이불속에서 자기가 실키 시작하야드디여 남편과 의가조치 못하여젓는데 금년 오월이십일일 아츰에는 사소한일로 남편에게 몹시 꾸지람을 듯고 그만 남편을 죽여버릴생각으로 남편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가지고 가는 점심밥 가운데 양잿물한숫가락을 석거너허주엇다 남편은 산에 가서 그점심을 먹든중 이상한 냄새가나므로 먹엇든것을 토해내어 버렷기 대문에 다행히죽엄을 면하엿다한다

職工層思想靑年
警察部檢擧繼續
二十餘名을連日取調中으로
女子도二名을引致

약십여일전부터 돌연활동을개시하야 부내모처에서 안녹산(安祿山) 리형원(李亨遠)등 사상관게자수명을 인치취조중이든 경긔도 고등과 사찰계(査察係)에서는 무슨단서를 어덧든지 고촌(高村)주임지휘하에 이십륙칠량일에는 전사찰원을 총동원식혀 부외아현리(阿峴里) 공덕리(孔德里)방면에서 리인영(李仁榮) 남충희(南忠熙)최병직(崔秉稷) 김규상(金圭相)등외공칠팔명을 검거하는 일방 가택수색을 삿삿치 하여다가 고촌 주임이 문을 굿게 닷고 주야로 취조중인데 사건 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침으로 알기 어려우나 검거된 청년들이 대개 사상관계자이고 또직공들은 모철공장의 직공인점으로보아 직공층의청년측이 중심이되야 어떤비밀단체가 조직되여잇지나 안한가추측되는데 검거된사람중에는 전에 신간(新幹)운동을 하든 안철수(安哲洙)와 모고무공장녀공 심(沈)모안(安)모등의 녀자도 석겨잇다 검거는아직도 단락되지안한터로 취조결과에 딸아 검거범위는 일층 더확대될것으로보인다

禮山의製系女職工
三百餘名同盟罷業
平素의待遇에不滿을품고
朝食을一切拒絕騷動

【禮山支局電話】 충남례산에 잇는 충남제사회사(忠南製絲會社)의 녀직공삼백여명은 이십구일 아츰여섯시 조반때에 식당에드려가려할때 직공들은 아츰밥을 먹지안는다고 하며 모다 집으로 돌아가겟다고 소동하며 일제파업을 단행하엿다 공장측에서는 당황하여 직공들을 무마하여 아츰밥을 먹이고 일부식히려하엿스나 직공들은 종시듯지안코 잇스며 직공들은 공장문을 굿게 닷고 녀직공 들의 출입을 금함은물론 외부의 사람들도 일체출입을 못하게하고 잇다 경찰에서는 곳출장하여공장을 경계하는동시에 파업을하게되리면과 주동자들을 조사중이다 원인은 역시 직공들의대우가 조치못하다고 전부터 불평중이다가 마츰내 폭발된모양이다

嶠南學校友會
創立을準備

【大邱】 대구교남학교(嶠南學校)교우들은 대구교육계에 가장력사를가진 모교가 경영난에 직면하야 감음목격하고 교우들의대동단결을 도모하야 모교의부흥책을 강구하라고 지난 이십오일 오전십일시경에 동교강당내에서 동교교우회 창립발긔회를개최하고 대책을 협의한바잇섯는데 오는구월십오일 모교창립긔념일를 긔회삼아 창립 총회를 개최하리라하며 동교졸업생 또는중도퇴학생은 급속히 동교내로 주소를 알리여주기를 바란다하며 창립준비위원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裵榮道 金壽千 杜宗奎 李想 孫基倬 金達道 曹逸煥 外三十名

制帽의學生이
列車에投身自殺

【平壤】 이십칠일오후일곱시오십칠분 평양역을 출발하는「히까리」급행렬차가 평천리(平川里)압을 통과할때에 조선옷에 부내광성고보(光成高普)제모를 쓴 년령 이십세전후되여보히는 학생한명이 뛰여드러 무참히 도참사햇다 경관이 현장에 급행하여 검시하엿스나 얼골이전부 떠러저나아갓고 소지품이 업기때문에 신원을 전연알수가업다한다 무엇때문에 죽엇스며 엇더한곳에 살고잇는지 목하예의 조사중이라한다

圖書館서上衣竊取

지난 이십이일 오후오시경 장곡천정 총독부도서관 대중문고(大衆文庫)에서 시내 황금정사정목 이백이십륙번지 최재정(崔在禎)이가 버서걸어노앗든 웃옷을 이저버린일이잇서 이래찻지 못하다가 이십팔일 오후사시경 대판옥서점(大阪屋書店)에서 전긔최씨가 자긔의옷을 입고잇는 사람이잇서 수상하야 본정서원에 알녀 체포취조한결과 범인으로 판명되엿다는데 그는 의주통(義州通)일정목에 잇는 소입원장행(小笠原長幸)(三一)이라는 부랑배라한다

楚山對岸에
朝鮮○○軍

【警務局着電】 이십칠일 오후한시경에 평북초산서앙토(楚山署央土) 주재소의 대안통안현제삼구통천구(寬安縣第三區通天溝)에 이주하는 조선인 안경희(安景熙)의 집에 조선혁명군 제이중대 소대장박창철(朴昌哲)이하 칠명이침입하야 안경희의 집에 체재하든 리달히(李達熙)를 랍거하야 가지고 부근에 잇는 이주 조선인의 집에가서 군자금의 독촉을하고 다시 안경희의 집에도라가든바 랍거되자는 틈을타서 도망하여 버렷슴으로안경희의 집에방화를하야 전소식히어손해 팔백여원을 보게하고 때목(夜木)로동자 세명을랍거하엿다한다

愼東玉等判決
最高五年役
今日京城法院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촉진위원회(朝鮮共産黨再建促進委員會) 사건의 신동옥(愼東玉)등 세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은 이십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으로부터 징역오년 내지이년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愼東玉 五年◀金義源 金梓春各三年 ◀李圭煥 二年

(以上各未決通算二百日)

天氣豫報
晴時時曇

昨朝宮崎南東海上에잇은 優勢한颱風은 今朝는 擇捉島에잇서 七三六미리를보이며 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이때문에 近畿中國四國은 暴風雨가잇고 東部日本은 흐리며 바람이强하다 高氣壓은 北滿에據大되고 滿洲、朝鮮은 晴天에흐린곳이잇스나 大槪日氣가조타

昨日 最高 三一、五 最低 二一、六

今日 正午 二八、一

運動競技

秋季實業
庭球리그
來月十日開幕

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의 京城實業庭球秋季리—그戰은 九月十日부터 다음의日程대로 京城運動場庭球코—트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平日은午後四時五十分、土曜日은 午後三時부터 競技를開始할터이라하며 日沒로 中止된게임은 其週土曜日의 試合終了後에行하되 雨天其他의 事情으로 中止된게임은順次 뒤로물리게되엿다한다

	【A코—트】	【B코—트】
九月十日	商銀—殖銀	鐵道—專賣
十一日	府廳—遞信	朝銀—總府
十二日	殖銀—專賣	商銀—鐵道
十三日	府廳—朝銀	遞信—總府
十四日	商銀—專賣	殖銀—鐵道
十七日	府廳—總府	朝銀—遞信
十八日	商銀—府廳	殖銀—總府
十九日	專賣—朝銀	遞信—鐵道
二十日	商銀—總府	府廳—殖銀
廿一日	專賣—遞信	朝銀—鐵道
廿五日	商銀—遞信	殖銀—朝銀
廿六日	鐵道—總府	專賣—府廳
廿七日	商銀—朝銀	殖銀—遞信
廿八日	鐵道—府廳	專賣—總府

養正陸上軍
卅日午前零時凱旋

關釜連絡船缺航으로因하야 下關에留陣中이든 養正陸上競技部一行은 二十九日午後三時 釜山入港의連絡船으로到着하야 同午後四時二十分釜山發 今三十日午前零時五十分 京城驛着臨時列車로 歸京할터이다

農業學校陸上에
大邱金君活躍
필드二種目優勝

【電通東京電話】 東京農大競技部主催 第一回全日本農業學校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二十八日午前九時半부터 神宮競技場에서 開催한바 各種目決勝戰績의 朝鮮關係分만을 記錄하면 다음과가튼데 當日大邱農林의 金潤根君은 孤軍奮鬪로필드二部 四種目에 優秀한成績을 發揮하야 朝鮮陸上界를爲하야 大氣焰을 吐하엿다

▲走幅跳=四等金潤根(大邱農林)五米六〇

▲投砲丸=一等 金潤根(大邱農林)一二米六四

▲投圓盤=二等 金潤根(同) 三一米六七

▲投槍=一等 金潤根(大邱農林)四五米三五

鐵原서合宿튼
普專、養正럭비
二十九日에歸京

【鐵原】 半島學生럭비—界의 兩雄! 普專、養正兩럭비—部는 全日本制覇를 目標로 지난八月一日부터 鐵原(公設運動場)에서 炎天下에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든바 지난二十七日 午後四時부터 當地同窓과 學父兄 主催로「럭비—」練習方法과 競技方法을 實演하고 뒤니어 李鍾珫氏 審判아래兩軍의 模範試合等이 잇서 當地人士들의 歡迎에 對하야 感容함이잇섯스며 兩軍은 二十九日까지로써 合宿練習을 마치고 歸京할터이라한다

朝滿陸上軍歸還

지난二十五日에 大連運動場에서 擧行한 朝滿對抗陸上競技大會에 出場하엿든 全朝鮮陸上競技團一行은 二十八日 午前二時五十五分着 列車로 歸京하엿다

立敎4 예일1

【電通東京電話】 예일大學對 立敎野球戰은 二十八日 午後三時부터 神宮球場에서 野本(球)、橫澤、森(審)三氏審判 예일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 四A對一로 立敎勝 閉戰四時二十五分

예일	001000000	1
立敎	00011200A	4A

龍中9 靑坡2

靑坡 淸溪 龍中三俱樂部第一回戰 第二回의 龍中對靑坡戰은二十八日 午後四時五十分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龍中先攻으로開始된바 結局九對二로 龍中勝

龍中	300420000	9
靑坡	000000002	2

滿俱7 日生0

滿洲遠征中에잇는 日本生命對滿鐵俱樂部第二回野球戰은 二十九日午後四時十分부터 滿俱球場에서 滿俱先攻으로開戰되엿바結局七對零으로日本生命再次敗退하엿다

滿俱	210001210	7
日生	000000000	0

各種庭球大會

朝鮮軟式庭球聯盟關係의 秋季男女各種庭球大會日程은 다음과가티決定되엿다한다

▲神宮競技京城豫選(九月七八兩日)

▲京城女子中等校리그(九月八日)

▲京日主催 全朝鮮女子 庭球大會(九月十五日)

▲男子中等校及專門校朝鮮神宮豫選(九月廿二日)

恐怖의颱風一過
各地方被害甚大
家屋浸水倒壞、電線等切斷

四國地方一帶大甚

【電通松山電話】 애와현(愛媛縣)하에 습래한 태풍(颱風)은오우를석거 이십팔일 아츰부터 밤까지 맹위를 자세하다가 오후구시넘어 겨우 풀리기시작하야 금조에는 태풍이 잠잠해지고 쾌청하엿다 연안의 항만은 임시격랑때문에 본토와의 교통이 두절되고 전신전화의 피해가 속출하야 각지에 피해가 만흔든바 금조까지에 판명된 국철예완선 조진 장빈간(粟津·長濱間)은 이십팔일 오후류시오십삼분 조진발차부터 불통이되고신거군서조정(新居郡西條町)방면은 압천(鴨川)이증수되야 도처에범람되고 그외가하천도 범람하야 전답침수가 사십여정보 침수가옥이 백여를 내이고 금치서(今治署)관내에서는 어선(漁船)십이척이 침몰하고 침수가옥일백오십 우화도(宇和島)에는 침수이백호심포(深浦)방면은 침수이백호 도괴이호 도로제방결괴교량류실등의 피해가 만코 또과실(果實)의피해도 만타한다

颱風은減勢
漸次로晴快

【神戶電話聯合】 신호측후소(神戶測候所) 조사에의하면 태풍(颱風)은 이십구일오전세시에 파마탄(播磨灘)의 중앙을 통과하야 다섯시가 지나서 명석(明石)의 서방을 북방으로향하야 진행하면서 풍속은 이십팔일 오후열시부터 이십구일 오전두시까지의 십칠미돌이를 최고로 하고 우량은 이십구일오전네시경 한시간에 삼십사、오미리의 경이적긔록을 보엿스며 동여섯시까지의 일우야의 총우량은 일백칠십미리가 되얏다 다섯시 이후 태풍은 북북동으로 돌면서 차츰약하야、저서우량도감소되고 태풍도 차츰그세력을 감소하면서 약협(若狹)방면으로 향하얏다

高松全市街暗黑
千餘戶가浸水騷動

【電通高松電話】 고송시(高松市)는 이십팔일 발전소(發電所)에 고장이이러나 전시는 암흑에빠저일대소동을 이르킨바 고송시외의 춘일천(春日川)이 범람하야 연안어목전군 목태촌(木田郡木太村)에서는 가옥백여호전답일천여정보가 침수되고 하류부근의 염전(鹽田)도 결괴되엿슴으로 주민은 즉시 피난하엿다 오후칠시현보안과에 달한보고에의하면 고송시내외의 침수일천호 도괴가옥이호 란파선이적엇섯스나사상자는업다한다

高知中村町
小學校도倒壞

【電通高知電話】 고지(高知)현하의폭풍은 이십팔일 저녁때까지도 종시끄치지안하야 현하각하천은 물이불어 가장피해가 만흔 번다군중촌정(幡多郡中村町)은 오후여섯시경이나 되야겨우 통신이 련락되기시작하엿는데 이통신에 의하면 전긔중촌정은하천범람으로 탁류가 밀려와 전정이니해(泥海)화하야 일천팔백여호나 가옥이 칠수되야 정민은 팔방으로 피난중이며 소학교도 붕괴되엿다하며 번다군 좌하촌(佐賀村)은 촌락전부가 칠수되야 그중 이백호는 지붕까지 탁랑(濁浪)에 잠겨보이지안는 참상이라고한다

神戶에山崩
七名壓死

【神戶電話聯合】 이십구일 새벽폭풍우중에 맹렬한 바람으로 말미아마 신호시즙합구 화천곡정(神戶市葺合區華川谷町)이백구번지의주택 아홉채가 문허지는바람에 문허저서 삼십사명은 순식간에 그미테 치엿는데 경찰서원과청년단원이 출동구조한결과 겨우이십명은 구조하고 칠명은 무참히치여죽엇스며 일곱명은 룰에휩슬려들어가서 행방불명이되엿다 구조된 이십명가운데서도 다섯명은 위중하다

大阪에도浸水
萬四千餘戶
市電도運轉을中止

【電通大阪電話】 대판지방의 폭풍우는 이십구일 오전일시경에 끈쳣는데 시내 각하천은 이십팔일 오후칠시의 만조(滿潮)시에 증수되야 시강(市岡)서관내 칠수가옥이 삼백오십호, 천미(泉尾)서관내 일천오백호,조일교(朝日橋)서관내 삼백호, 시전 영도선(築島線)북항(北港)해안은 궤도에 일척이나 침수되야 운전을 중지하엿는데 피해는 별로업다한다

【大阪電話聯合】 이십구일오전십시까지 대판부경무과에 도달한 부하의 피해상항은 다음과갓다

床上浸水 一、二〇四戶

床下浸水 一二、九九四

特殊建築物被害 二

堤防決潰 四個所

三和고무罷業擴大
同一業工塲에波及
第五工塲百餘名加擔、三工塲도動搖
工場側의態度는强硬

【釜山支局電話】 부산삼화고무회사 제일공장의 파업은 벌서삼일이되도록 서로 강경히 버티고잇다 이십팔일오후에 회사측에서는 간부회의를열고 파업단측에서 요구하는 남자직공에대하야 고무신 한켜레에 일리칠모 녀자직공에게는 한켜레에이전오리로 삭전을올려달라는 요구는 절대로 드러줄수 업다고결정하고 직공측에서는 자기들의 요구하는바를 드러주지안흐면 일을하지안키로 단결하고 잇다 그러고 이십팔일 오후에 파업단오십여명은 부산부외 부전리(釜田里)에 잇는 그 고무회사의 제삼 공장을 습격하야 그공장에서 일을 하고잇는 남녀이십여명의 직공에게 가리 파업을 하라고 선동하엿는데 그공장에서도 방금 동요중에 잇스며 선동한 직공가운데서 두명은 부산경찰서에 검속되어잇다 그러고 이십구일 오전에는부산 좌천정(佐川町)에 잇는 그 회사의 제오공장에서 남녀직공 일백오십여명 가운데서 일백이십여명이 동맹파업을 하엿스므로 부산경찰서에서는 정사복 및 기마경관이 공장부근에출동하야 엄중히 경계를 하고잇다

파업은 좀처럼 해결될것 가태보이지 안코 점점 확대되여 가는 형세이다

便利도經濟되는新燃料
新發明同化煉炭
植物纖維素를利用한것
李種玕氏發明

직업의 여가에 경제적연료(燃料)를발명한 긔관사가잇다 본적을 경기도파주군탄현면 축현리(坡州郡炭縣面祝峴里)에 두고 현재인천부내리(仁川內里)일백삼십사번지에사는 조선우선주식회사(朝郵)일등긔관사 리종간(李鍾玕)(三一)씨는 직무상항상 연료의 긔술적절약을 고려하야 꾸준히 연구하여오든바 식물섬유소(植物纖維素)가 비교적만히포함한가연성토상물(可燃性土狀物)을 원료로하야 동화련탄(同化煉炭)이라는 새연료를 발명하야 방금특허국에 특허원을 제출중인데 이동화련탄은 신탄(薪炭) 대용물이 되는동시에 공장용 연료로도 적당한것으로 일반가정용으로 가장 리상적 연료로서 가격이 싸서 쌀한되 밥짓는데 겨우 일전밧게 걸리지 안하야 전렬(電熱)사전칠리 목탄 이전팔리 다른련탄 이전등에 대하야 삼배내지 이배나 경제되며 전연 연긔도업고 냄새도업서 사용에 편리할뿐아니라 불이 쉽붓고 화력이 셈시 강대한것이라한다

(사진은 리종간군)

치질엔 엥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를 하… 치질이잇는 대여러해… 치질로 수술햇에번이나하고 조아한약 상약별별치료를 하여도 좃지낫지안는 치질이 구루(ANK)이주일분으로 효험을보앗스니 임이년되는것이앗과 효력을 볼수잇다 다욱가튼 아심하시고 곡쓰시오피나는대로 문이빠지는암치질 숫치질 치료 치질해무슨치질이든지치료됩니다

【약가】 중용에一원 경용엔一원 송료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며 삼십전이요 분품에 느키도하고 바르기도하는약

(약은)경성신성당에로주문하시오

기침·담·천식엔 엣치삐—가제일이오

…나 메해안되기침이야 곳효험을볼수잇다 다음과가튼분은 해소와담나오는대폐병부족중으로 기침과담이장바치며 결핵결핵하는데기침하며 숨이끄녀질것가튼대되게안나와도조금식 바튼기침하는대기침은안해도장—담이나오는대—

【약가】 완고용三원 중증용二원 경증에一원 지방송료는 대금인환이면삼십전약은회약이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요

남녀노소…여러해되는천식 해소천촉 으로별별약을쓰고별별치료를하여도안낫던해소가 신발명한엣치삐—이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앗다그

부족증·폐병·륵막염엔 나오삐—가제일이오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일년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종래의치료가 불철저하엿다 입때까지는 즉접환부의 균만죽입나고드럿스나 그래서는 절대로안낫는다살균도보하고 원기를 도아주어야한다 그뿐더러 잡식(雜食)하는 부분을 막는법이 새로발명되엇다 즉살균보혈강장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 일시에 하여야되다 이작용을식히는데종래에는여러가지 치료법이 잇섯다

약 열흙동안에대효를본 참신기한 약이다 이러한 자신이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을 쓰고백방으로 치료를하여도 안나어서고롱하는분은 일시라도 속히나오삐—를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하고담뱃고 열이나고 몸이파리하여지고 혈담뱃고 피를토하고 숨이차고원기가업고 가슴이아푸고 역구리가절니고 갈비때도압프고 부족이찬분 부족증 폐병 륵막염 뇌점병

【약가】 삼기용二十원 이기용十원 초기용五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 삽십전금이면 무료 (약은 가루약이오 열흘만 먹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요)

체증과속병엔 겡오—가제일이오

효험최극상 최근에 전세계에 유명한후에獨에 도마하드렷고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전보담 만하더느 엇답니다

무병이장지요 신외무물이라니병이잇고는 전세계재산이다—자기것이라하야도 소용이업고산해팔진미가눈압헤태산가티 싸여잇서도먹고십지안으니 무엇보다도 빨리평생의요망은 위장병자의일우장병이 나어서구미잇서음식먹고질소화하야 건강한정신과건강한몸체로활발스럽게、남과가티활동을하고십흔것바게는 더바라는것이업스리라 입때까지좃치못한일시적효력업는 조틋거나전연히안낫거나그럿지안으면 인이백이는중독하는 약을먹복하여백방으로병치료를다—하여도 특별한

그런데잠신 위장신액경 효력을못보앗스리라 기한죄료속최고귀한 오—를 발견하엿다 그大력의위대한증거는 답지하는 감사장이증명하오니잘보시고안심하시고백방으로 치료하여도잘안되여곤난하는분은최후에 겡오—를 일각이라도빨리쓰시와 인생의최대행복인건강미를맛보시오 이액은남녀로소업시 유아간기에신효하니가정상비액으로 두시는것이우리위생상 건강상제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의분은쓰시오◇

◇소화불량、만성위장가다르、적괴、위괴양、구미업는대、신경쇠약、위확장、위산과다증、위하수증、구식조선말로주체、담체、냉체、식체、회식등무슨체증이든지단시간에 듯습니다 액은가루의인대 하루에세번、식후반시간후에 온수나 냉수에먹습니다

약 갑

완고용(頑固用) 한갑 三원

중증용(重症用) 한갑 二원

경증용(輕症用) 한갑 一원

지방송료 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삼십전악가를우편산세전짜리로보내도조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상성(異常性)의 특이성의 체진(特異性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 적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업거든약을 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약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일세) 振替京城三三四番·電話光化門九五〇番

될수잇는대로 다드미질은 안는것이엇덜까

우선 듯기실코 옷에도해롭다 그대신다듬는방법

가을ㅅ밤의 다듬이ㅅ소리는시로 읊퍼서 운치가 잇고 글로 써서 흥미가 잇스나 가까이 들어서 귀따거운 것도 물론이려니와 죽접 다듬ㅅ고 안젓는 그분네의 수고와 괴롱으로 말하면 오죽이나 심하오릿가? 진일、마른일로 담배 한모금 피울ㅅ사이업시 새벽부터 저녁녁까지 돌아 다니다가 또다시 밤이 이슥도록 방맹이질을 하자니 그 팔이 오죽 아프며 그몸이 오죽 피곤하오릿가? 가을ㅅ버레와 함께 다듬이ㅅ소리를 한가롭게 들어 붓대로 옮기고 잇는 그사람들은 패ㅅ심한 사람들이라고 아니볼수 업습니다。그 소리의 마듸마듸를 딸아서 어머니의 근력이 쇠해 가고 누님의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을 괴어해 두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

어떠케 다듬이질을 업샐 수가 업슬까요? 그것만 업샌대도 가정부인들의 로동을 얼마나 덜어드리 느냐는 말슴야요? 그전에는 무명것이나 깁것이나 겹것이나 홋것이나 다듬찌 안코는 입지 못 할 쭐 알앗지오만 깁것은 조금도 다듬을 필요가 업습니다 책꼭 책꼭 개키어 정한 보로 싸노코 술을

발바서곱게다리면

다듬이한것이나 거의 진배가 업습니다 오죽 무명것만은아모래도 조금 다듬어 노화야만 풀도 끌고로 퍼지고 발도 서서 바느질할성도 조코 입을썽도 나흐나 그중에도 녀름의 홋것만은 그여시 다듬찌 안해서 무방합니다 꾹꾹발로만 발바서 한번 썩 다리어 노터라도 보기가 아조숭어워서 입지못하게까지 되리라고는 결단코 생각하지 안습니다。

×

그러니까 무명것의 겹것으로 말하오면

다듬이를꼭 해야

만 되게됩니다。우리들의 일반적옷감이 깁것이나 양속으로 뛰어올라가지 못하는이상 다듬이를 전폐하기란 그야말로 곤란한 일이올시다。그러나 중국사람이나 일본내지인은 무명것의 겹것도 다듬이를하지안코 꿋꿋을 입지안습니까? 다듬질이란 결국 조선의 독특한 풍습이 아니오니까? 물론 힌옷만은 다듬지안코 입을수 업습니다마는 무색옷은 다듬찌안코도 입을수 잇스리라고 밋습니다。아마조선서 다듬질하는 풍습이 구쳐진것도 구김은 힌옷을숭상한 관계가 아닌가하는데 힌옷이 폐지되어 가는 오늘날 다듬질하는 풍습도한께 폐지에서 조치안을까 저의에 보고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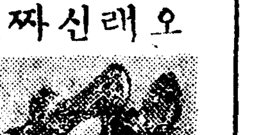
×

그러타고 무명것의 겹것을 빨다듬이만 해서 입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 다려서 입거나 할수는 업습니다 다듬이를 업새자고 하면

그처리를어떠케하랴

고 물으실분이 만흘ㅅ것입니다 그러나 빨래를 빨아가지고 풀을 먹인뒤 정한넙빤지쪽에 짝부치어서 말리엇다가 다 마른뒤 사르르 떼버립니다 다 마일 요ㅅ닛이나 이불닛가치 커다란폭이거든 양편을 줄로 적어 다리어서 말리는것도 무방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무명것이라고 반듯이 다듬이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동목과 가튼것은 양속과가치 빨다듬이만 해서라도 입을수잇습니다

칠피구두 오래신짜면



이지음 칠피구두가 만히류행되는모양인데 그것도 손질하는데따라 오래신울수가잇습니다。칠피의 광채가 얼마동안이나 그대로 유지될수잇는지를 경험해보면 늘다고단이시는분은 일개년갈을 신게되고 만히거러단니시는분은 반개년박게 더못신습니다。칠피의광채가 업서지지 안코 오래계속되도록하려면 깔깔한구두약을 쓰지말고 묽고깨끗한 액체의기름을 헝겁으로 찍어닥거야 상하지도안하며 오래되여도 광채가 그대로 잇습니다 대개 가정에서는 마른걸내、저즌걸내를 물론하고 함부로 닥는분이만흐나 그것은 못씁니다 오래되여 광채를 일허섯슬때라도 먼저 말슴한것과가티 액체의기름으로 한참 닥그면 회복됩니다 그러고 칠피는 찬것이 금물입니다 겨울치운때 신고만 잇다가 훗훗한 교실이나 사무실에 드려가는것은 더욱만히상하야 쪽쪽 터저서 아주수를못합니다

귀가집반찬 가지김치

◇맛잇게담그는법◇

일반가정에서 가지나물이나 채국、찜가튼것은 만히만드러먹지만은 가지김치해먹는 가정은 흔하지못한모양인데 이것은 대개중가에서 만히해먹습니다。먼저가지를 반토막에잘나 또열십자형으로잘는되 오이김치처럼 중가(中間)까지만잘느되 다음 부초를반에잘나 가지잘는것과가티 소금에축저려서 꼭 짜서그릇에담ㅅ고 고추、마늘 생、건청북、실백(파는조금길게 채치는것이 조흡니다)등약념을가장 조금치서 한데석거가지고 가지에 둘둘히 소를너허서 가지한켜 부추한켜 너허서 꼭꼭 눌러둡니다 새우젓국이나 멸치젓국을 간이맛도록 부으면 더욱 조흡니다 그리고 고초를 좀더 만히 너허 깍두기처럼 빨갓케 해두엇다가 요사히는 이틀쯤 두엇다가 끄내먹으면 입맛이 깨끗하고 맛이 조흡니다。

아침

어린애기머리때리면 벙어리되기쉽다

갓난애의 벙어리고 아닌것을 엇더케하면알수잇슬까

『귀먹어리』나『벙어리』는 나면서부터 되는것도 만치만은 대개는 생후 그어떤 고장으로인하야 그러케 되는수가 만습니다。

어재 농경 맹아학교 통계에의하면 『귀먹어리』『벙어리』 서른한명 가운데 나면서부터 이러케 된 생도가 아홉명(그중세명은 배내사고)이요 그외 스물두명은 모두폐염、마마、성홍열、뇌막따린것、뇌막염때문에 된것이라합니다。이것을보면 얼마나 생후에 부모가 어린애에게 주의하여야 할것인것을 알수잇는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이것을 다시각지방맹아학교 열한곳 재학생 삼백팔십구명에 대하야 조사한결과 내이염(內耳炎)때문에 실관(失官)된시긔를 보면

한살때된애기 일백열한명
두살때된애기 일백열아홉명
세살때된애기 여든두명
네살때된애기 스물아홉명
다섯살때된애기 열한명

이라합니다 그리고 열네살까지 한명내지 아홉명이란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한살로부터 다섯살사히에 여러가지병환으로그러케된것이라고 볼수잇습니다그러면 어린애를 나흔다음 어머니는 그애가 듯는것이나 말하는때 고장이 잇고업는것을 시험해보아야 알것입니다。

×

어떠케 하여야 이것을 알수 잇슬가? 그것을 알려면 생후 이십일이 지나면 어린애의 대소변을 어머니가 안고서 식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자긔 호흡이 어린애의 머리와 팔에 다치안케하고 『쉬쉬』하십시오 반년후 말소리를 내게될때에어린애가 대소변을 보겟다고요요『쉬쉬』하면 그것은 『벙어리』도『귀먹어리』도 안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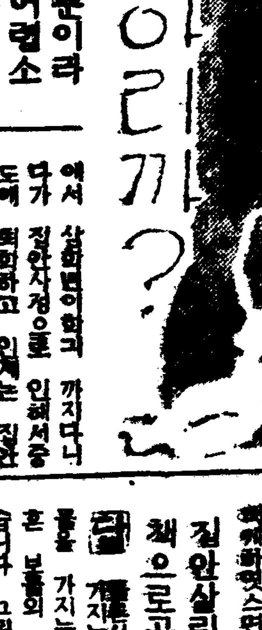
그리고 어린애가 몸을 자유로 놀릴때쯤해서 자고 깰 다음 어린이를 문밧게서 불러봅니다 이것을 보통사람은 다들릴수 잇는데 이소리나는 편으로 어린애가 몸을돌리지 안흐면 그것은 귀먹어리입니다 그리고 병알은 후에도 벙어리나 귀먹어리나 되기쉬운데 이것도 이런방법으로 시험해보십시오。

×

그런데『귀먹어리』나 『벙어리』인줄을 알게되면 그다음은 어떠케해야할가!

원래 이런애들도 전혀 이 이저진것이 아니오 보통사람과 비교할수 업스리만치 청각이 약한것뿐이므로 『레시ㅣ버ㅣ』나 확성긔등의 긔계로 훈련하면 레코ㅣ드 도 들을수잇고 또 떠러지지 안는입도 말을하게됩니다。그러므로 귀먹어리나 벙어리를 속히 발견하여 이러케 잘 훈련식히면 보통사람과 가치됩니다

어찌하리까?



어머니한분뿐이라 공부하기가어렵소

문 저는당년 二十세의 청년입니다 시골읍에서 한 촌에서 로모를 모시고 고적하게지내오나 집안 재산은 부동산 합해서 한 一만원가량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작년 가을 까지경성 어느 중학교에서 삼학년까지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인해서중도에 퇴학하고 인제는 집안살림을 돌보고 잇는데 장차이세상을 살어가자면 현재이러한 생활에서 만족하는것보담 좀더배우고 십흔 생각이 더 만습니다 지금제생각에는 모든것이 하나도 들어지 안[illegible] 어찌하엿스면 조켓습니가?

집안살림해가면서 책으로공부하시요

답 물론 배우는사람이 지식을만히 가지는것은 어떠한것보담도 제일조흔 보물의 하나임은 틀림업습니다 그러나 다른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지식만을 가지는것이 반드시 고귀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현대와 가티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안흐면 어떠한 지식을가지고라도 그지식을 쓸수가업[illegible]을 밧고도 오히려 아모[illegible] 사람이 얼마라도 만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떠만히배우고십다는 지식욕은 가륵한 마음이라고 하드래도 지금당신이 중학교조차 중도에 퇴학하게된 절박한 집안사정을 무시하고 더배우려 나선다면 그리고 어느연한까지 배워서 지식이 풍부하게된다고 한들 지금 당신의 경제적 조건을 무시한 그다음처치는 어떠케하겟습니까? 물론 지식이라는것은 조흔책을 만히읽고 조흔교훈을 만히듯는데서 어들[illegible] 교훈이 아니드래도 배우고십흔마음만 잇다면 우리네가일상생활을 하는가운데서도 책에서 엇는지식보다 더조흔지식을 어들수도 잇는것입니다。그럼으로 당신처지와 가튼 이는 지금고마한 재산이나마 모를 버리고 학교에서 배우겟다고 나오는것보담은 지금 그살림을 잘보전해가면서 최대한도의 밋치는대로 공부를 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그리고 당신이 물어달라시는분은 본사의 형편으로 무러드리지못하고 긔자가대신해답합니다)

양산은 잘손질하고 빠라두엇다가 래년에또씁시요

파라솔세탁하는법

한여름동안 꾸준히 동무해준 양산도 고만 이제는 문지못고 끄을고 구겨지는 등 추해집니다 이런때 다시한번 깨끗이 빠라서 거츠른가을 해볏을 가리우기로 합시다。

넘우 과히 더럽지안흔것은 약간 중조를 쐬어 일광에 말리면 색갈이 남니다만 무엇이 무덧슬때는 휘발유로 잘 닥그서야합니다。그러고 세탁할때는 양산자루를 조히나 수건가튼것으로 싸서 확펴노코 솔에다가 세탁비누ㅅ물을 칠한뒤 손바닥으로 바치고문질너빰니다 레스나 자수의장식은톡톡치든지살살 눌르집시요 또구겨저서과히 더러운데가잇거나 전체로과히 해젓슬때에는 넓판지를양산밋헤바처노코 솔로약간문질러빤다음 세탁소다를 물에타서 역시솔로 쇄쇄문질른뒤 맑은물에 헝구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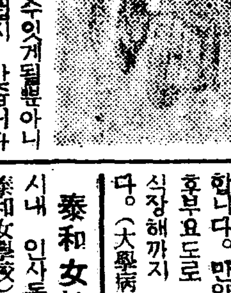
빠란양산은 이상과가티 빤 후 조산수(醋酸水)를 솔에 못치어 문질러가지고 맑은 물에 헝굽니다 그리고 양산에 녹이못든지 끌어색갈이죽을때는 조산(醋酸)대신으로 조산(蓚酸)을다섯그람 내지열그람쯤 물에타서 것쪽으로부터 문지릅니다。

물이무덧슬때는 물반곱부에 『세라찡』서너그람을 타고 『글드린』기름을 석근뒤솔에 조금식무처 문지릅니다

양산에 비가새지안토록 하는데는 긔성약제를 약방에서파는 방수제(防水劑)를사서 칠해말린뒤 다시 조산알미나액을사서 칠해말립니다 다 방수법을 좀더간단히하려면 벤징한고뿌에 파라핀 열그람을 석거가지고 병가튼데 한롯밤쯤너허두어 다 녹인뒤 솔로그것을 양산에 칠해가지고 볼끄운이 업는 데 펴서말립니다。양산부속품이나 술가튼것은 마른다음에보면 꾸겨지고 딴딴해 지니까 이러케될때는 다시 한번 수증긔를쪄어말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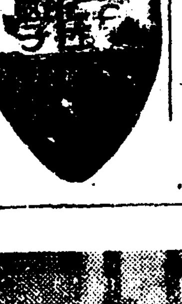
자미스러운 금붕어의습성

―누구나시험할수잇다―



어항속에 기르는 금붕어를 매일주의해보면 여러가지 자미스러운 금붕어의 습성을 알수잇습니다 또 금붕어에대한 상식도 자연알수잇게될뿐아니라 여간취미스럽지 안습니다 금붕어를 적은유리그릇에넛코 시험삼아 그듯에노는것을 비교해보면 좁은그릇속에서 좌우로 휘엿지는가운데에서 자기의운동하고 잇는 장소의범위가 얼마나 좁은가를 잘알기때문에결코 자기몸을 그릇에 부비치지 안습니다 얼마동안지나면 이것이 습관이되여서 다른넓은곳에 옴겨노와도 장소가 넓어진것을 전연 알지못하고 전에 좁든곳에잇든때와가티 꼭 그주위로만 돕니다 이것을보와 습관이 무서운것인 것은 우리인간에만 국한되지 아니한것임을 잘알수잇는것입니다 또 금붕어가 렬을지여 울훈편으로 돌때는 물도 울훈편으로 흐릅니다 이밀때 그들은 방향을 변해 왼편으로 돕니다 이러케 놀자기와 가튼 방향으로 흐르는 물ㅅ결과 반대로도는것은 금붕어에게만 특성이아니라 일반물고기가 물ㅅ결을 거슬너나아가는것이 특성입니다

만성비뇨기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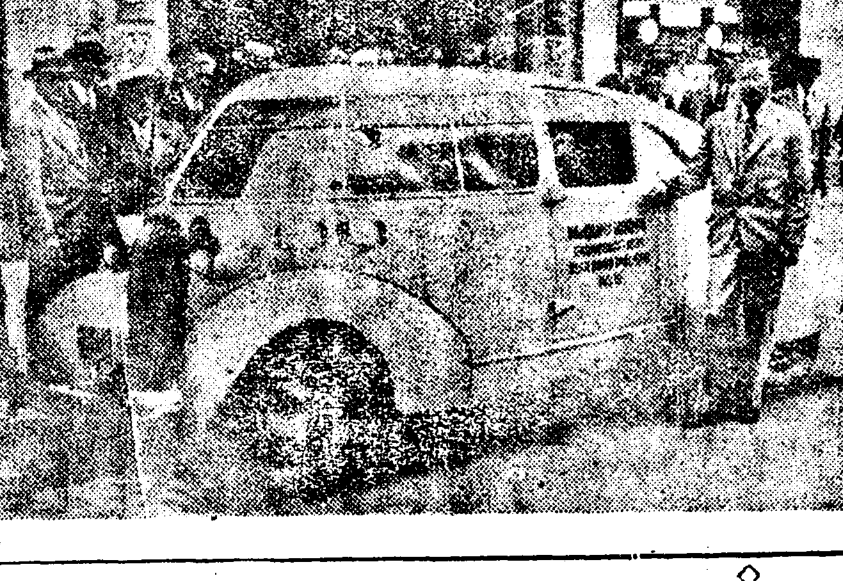


문 저는 이십삼세의 남자이온데 입사전에 음경끗요도까지 옴엔 가렵다가 이삼일후에는 힌 고롬이나오드니 소변볼때에는 좀 압흐고 초긔에는고름양도 만어서 림질인줄알고 신약을 한이일간 먹으니 아주나엇든것갓드니 완전이낫지안어서 그후에도 게속하야 신약과한약을 먹으나 오날까지 상금도 낫지안코 농액은현저히보이지는안으나 각금소변시에 처음에는 좁호려서 소변이나 감니다 이것이 림질병인지 저는동침하여서 전연방이 업습니다 지금은약도 먹지안으나 처음보담 차츰나어서 압흔일이 업스나 이상일에 한번식 가렵은일이 이 조금식잇습니다 만성이되는것이오닛가 만성이되는것이오면 이처럼 나어지지 완치법을 자세히하교하여주십시요。(一讀者)

답 감염된고회가업섯다고 하지만은 림질임에 틀림업슬뜻합니다。지금은 만성이 되야서고롬도표나게 나오지아니하고 요증도별로 업는듯하오나 이것을완치하지아니하면 또어느때 악화할지모르는 것이니까 곳 전문가의 철저한치료를 밧는것이안전합니다。만약에 심하야지게되면 후부요도로 고환까지 범하야 생식장해까지 발생하는일이잇습니다。(大學病院小川外科金晟鎭)

이번에는淚滴型 자동차가새로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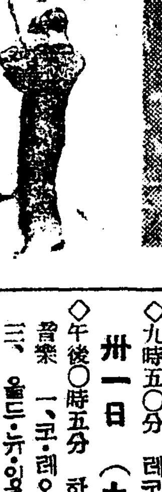
류선형이란말도 지금와서는 옛말되엿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미국에는 요새 루적형(淚滴型)의 자동차가생겻습니다。글짜뜻과가티 눈물방울처럼된 자동차입니다 전의류선형과 비젓하기는하나 더 동글동글하고 겹키는데업시 밋근하게생겻대서이런별명을지어겟지요 사진은『센트·루이스』시에서 처음맨든것을 자동차공업이 왕성한『데트로이트』시로가지고와서각공장의기사들이 신기하게 바라보고、시험해보고 하는판입니다。시험해본결과 이루적형자동차는 여러가지로 조흔점이 잇다합니다。



泰和女校音樂生募集

시내 인사동태화녀학교(仁寺洞泰和女學校)음악부에서는 오는 구월일일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자세한것은 다음과갓다

▲入學資格은高普程度品行端正한 女子에 限함
▲敎師 李貞熙先生(梨專出身)
▲初步로부터敎授
▲敎授時間은 午前九時부터午後九時까지 便宜한時間을割與함
▲授業料 風琴二圓 피아노三圓(一週한번敎授)
▲風琴使用料及授業料三圓五十錢
▲피아노同 五圓
(練習使用은每日한時間式)



二十九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吹奏樂 救世軍育兒院밴드 指揮W·E·노ㅣ벨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가을에우는버레、가을에피는꼿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常識講話 海產食品의榮養的價値(一) 梨花女專敎授 金浩植
◇同八時三〇分 音律 鍾山會[illegible]
◇同九時 連續라듸오、드라마 沈淸傳 全三幕中…朴珍脚色(第一幕) 라듸오·드라마 演出…朴珍 效果…[illegible]

三十日(金曜)

◇午後二時 婦人時間 洋裁에對한一般知識(三) 任貞爀
◇同六時三〇分 童話 기름장사 [illegible]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가을에우는버레、가을에피는꼿(二)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話 標準語制定에對하야(一)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獨唱과二重唱 一、獨唱 (가)小夜歌…토세리作曲 (나)[illegible]스作曲 (다)小夜歌…[illegible] 伊太利民謠 (라)귀속말…[illegible]르作曲 二、二重唱 山속의집으로 베르듸作曲『일트로·바토레』에서 소프라노 孫美慶 테너와피아노伴奏 玄濟明
◇同九時 連續라듸오·드라마 沈淸傳 朴珍脚色 라듸오프레이
이미링 演出 朴珍
效果 李雲芳
全三幕中 (第二、三幕)
▲第二幕 處 張丞相夫人宅 時 第一幕의한달後
◇配役
張丞相夫人……金仙草
沈淸……卜惠淑
沈奉事……朴齊行
侍婢……姜石燕
귀덕어미……金蓮實
船人甲……徐月影
同 乙……金翠雲
▲第三幕 處 臨唐水 所 第二幕으로數日後
◇配役
沈淸……卜惠淑
船人頭目……李素然
同 甲……徐月影
同 乙……金翠雲
同 丙……尹星畝
同 丁……朴齊行
◇九時五〇分 레코ㅡ드音樂

卅一日(土曜)

◇午後○時五分 하와이안기ㅣ타音樂 一、코·레오 二、외로운길 三、올드·뉴·오ㄹ란드·무ㅣㄴ 四、오·돈나·쿨라라 五、콜로라도의달 六、달아래로나오라 七、베니·베 八、솔린곤
◇同六時三〇分 하모니카獨奏 李東坡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라듸오學校 가을에우는버레、가을에피는꼿(三) 徽文高普 李軒求
◇同八時 講話 標準語制定에對하야(二) 李克魯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잔듸밧 二、울지마러요 三、鶯枕의嘆息 四、사랑해주서요 五、[illegible] 六、[illegible] 七、十八歲의밤 宋英愛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歌曲 一、羽調[illegible] 二、羽樂 三、界樂 四、界[illegible] [illegible] 金相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三〇分 古談 [illegible] 車青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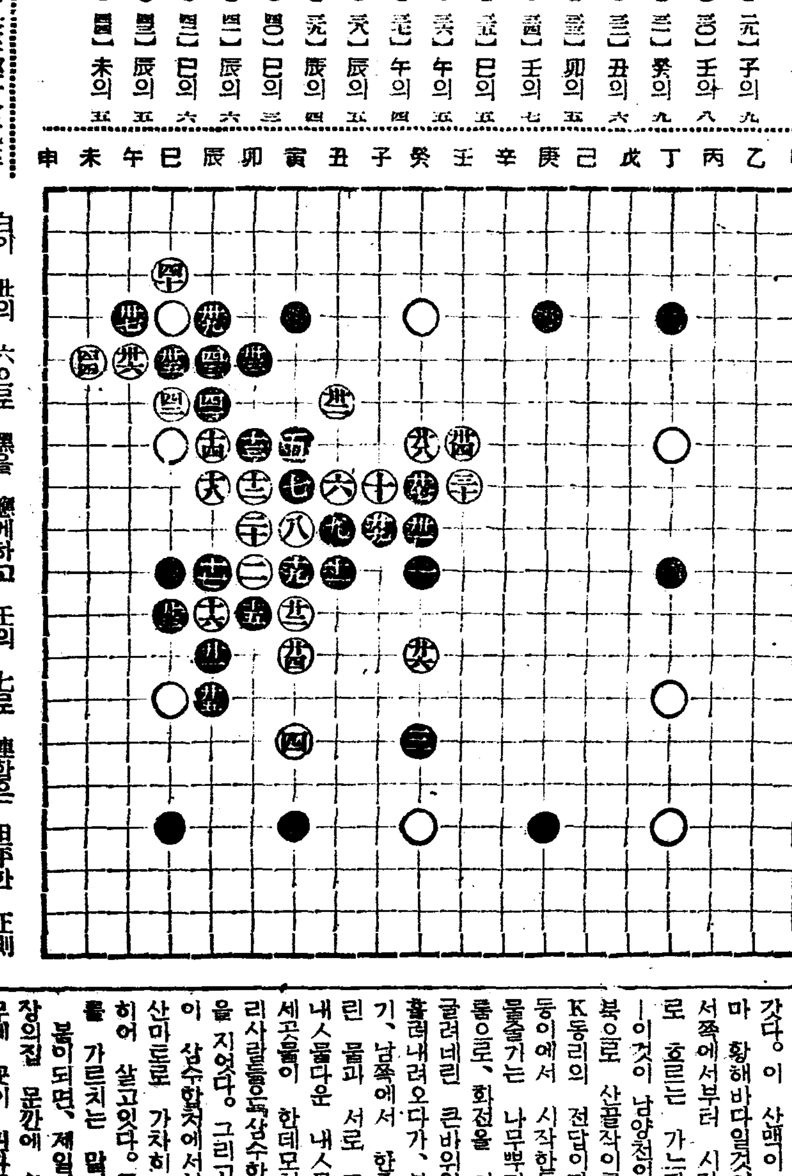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3―

白 閔仲植
黑先 丁奎春

●	二十九	子의九
○	三十	壬의八
●	三十一	癸의九
○	三十二	丑의六
●	三十三	卯의五
○	三十四	壬의七
●	三十五	巳의五
○	三十六	午의五
●	三十七	午의四
○	三十八	辰의五
●	三十九	辰의四
○	四十	巳의三
●	四十一	辰의六
○	四十二	巳의六
●	四十三	辰의五
○	四十四	未의五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蔡極文氏評 白이 丑의六으로 黑을 應케하고 壬의七로 連함은 坦平한 正則이다 黑은 寅卯七三點救出次로 巳의五 辰의四 迂回曲逕으로 本營을 構成하니 安危夷險을 不可不懼이다 白은 午의四 黑斷點을 畏憚하야 未의五로 起立함이 相當치안흔가 만일 未의 四로 黑을 斷하면 午의 六白後援斷絕에 狼狽를 볼것이다 時局形勢에 捕略가 急先務이오 來回推移가 注目處로다

短篇小說

福順이 (1)

宋影 作
熊超 畫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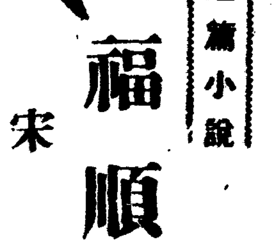
무봉광산은 그다지 이름난 광산이 아니다。금광 만키로 유명한 A군에서、어데 어데하는 유명한 광산들틈에끼어 무봉광산이라고하면 짐작할만큼 되것도 겨우 작년부터의 일이다。처음에는 개천가의 모래바닥이나 바를 파헤치고서 사금이나 주서먹든것이엇는데、재작년부터 석협을 발견해가지고 움케맥을 잡어든지、지금은 광부를 매일 칠팔십명식 사용하게되엇다。무봉산은 이광산외에도 그의 배ㅅ속을뒤지면 몃개가더잇슬른지 모를마큼 마흔광맥을 가지고잇는 묘고(妙高)광백미등에 가까운 웅장한 산이다。동북으로부터 수백리를 줄기차게 꿈틀거리며 뻐더나온 묘향산줄거리가 이고을에 이르러서 이무봉을 이룩하고、여줄가리는 그대로 키를주리면서 또 꿋칠줄을 모르고 한업시 서남으로 뻐치어나갓다。이 산맥이 끗진곳은 아마 황해바다일것이다。산 아래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남으로 흐르는 가느단 시내ㅅ물――이것이 남양천이오、남양천 남북으로 산골작이를 차지한것이 K동리의 전답이다。무봉산 장동이에서 시작한듯십흔 최초의 물줄기는 나무뿌리 미트로 돌룸으로、화전을 이루느라고 궁굴러네린 큰바위와 바위사이로 흘러내려오다가、북쪽에서 한줄기、남쪽에서 한줄기식 흘러내린 물과 서로 모혀서 비로소 내ㅅ물다운 내ㅅ물을 이루엇다 세곳물이 한데모힌 이곳을 동리사람들은삼수합지라고 이름을 지엇다。그리고 마을사람들은 이 삼수합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마로로 가차히 옹기종기 모히어 살고잇다。K동리는 여기를 가르치는 말이다。

봄이되면、제일먼저 K동리 구장의집 문깐에 서잇는 살구나무에 꼿이 핀다。동리의 압뒤에 보이는 야튼산―큰대접한개 업허노흔것만한 작은산에、푸른솔바를 간간히 붉은칠로 수노흔듯기 진달내꼿이 피기는 그 쑥ㅅ꼿이 피고난뒤요、냉하천 즘다라내ㅅ둑에 모닥오든 뎡어리저서 자라나고잇는 키작은 조선버들의 행렬이 잔잔한 물우에 연록색·그림자를 그리어노코 페꼬리가 그속에서 합창하는것은 또 그다음의 일이다 K동리는 작년까지도 한 삼십호밧게 되지안튼 조그만동리엿다 그러나 지금은 오십여호를 세인다 그리고 읍에서 칠십여리나 상거가잇는 이산골에 갈보의술집까지 생기엇다 전에는 하루건너 한번식 우편배달이 나오든것이 지금은 매일빼지안코 우편을가지고 나오게되엇다 이것들은 모다 무봉광산의 덕택이엇다 무봉산을 중심으로 그부근에서 작업하는 광산은 한두곳이아니지만 K동리에서 작업하는 광산은 오직이것하나뿐인고로 광산사무소를가진 다른동리를 부러워하든 K동리사람들이 지금은 아조

『우리도 인저는 남만 못지안타!』

하고 웃줄거리는 판이다。

한낫에 『쾅!』소리가 산속에서 울리어나오면、울튼 삐꼭이 소리는 딱끈치고、솔포기사이에서 장꿩이 푸르르날러 건넌산으로 다러나면서 놀낸듯 외마듸소리를 길게울고、놀낸노루는 껑충껑충 뛰어다라난다。산허리를 뚤코 수직으로 갈들을 캐어들어가는 항내(坑內)에서 화약(火藥)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이가른 굉장한 음향이 들릴때마다 동리의 여인네들、어린아이들은 멀지안허서 자긔들이 잘살게되려니―하는 꿈가튼 긔대와 희망에 마음이 느긋해지는것을 느끼는것이다。그리고 어서어서 그 희망이 터지면서 바위가깨지는소리가 연속해서 이러나기를 고대한다。항구(坑口)에서 제련작업장(製鍊作業場)까지『레ㅣ루』위로『토록코』가 광석을 운반해 내는것을 개천가에서 멀리 바라보고서든 복순이는 이때에 빨래그릇을 머리우에 이고서、이마에 땀을 씻스며 자긔집으로 들어갓다。



夏の育兒に腐らぬおちち
ラクトーゲン
脂肪、蛋白、乳糖等의外 榮養素가 母乳에 全然一致될뿐아니라 비타민A、B、C其他 育兒의 肉體와 骨骼發育에 必須成分을 具備하야잇습니다

夏天星象

南斗와天市垣 (3)

—梁武帝의被髮下殿—

安在鴻

『젓갈』은 南天에잇는 여름의 偉觀이라고 하겟는데 『젓갈』의 꼬리에로로 銀河를 건너 東편 비탈에 傳說星을 사이에노코 南星이 서로다어 부럿스니 큭

箕斗

手』(왕궁)座로 된者이라 개인 밤 휘저녁이면 모두 또렷이 보이는者이다 西에서 箕(키별)의 네별이 濟心을 向하야 不等邊四角으로 입을 버렷스니 푹대기별의 위로한개의 적은 별은 『거별』(穅)로서 『明則歲豐하고 暗則歲亂』하는流의 占星說이잇다그次로 여섯별이 北斗星시늉으로여시 西에 向하야 斗門을 벌린것은 卽南斗六星이니 이六星을사람으로치고 『키별』과 外두별도틀로따저

全體

로서 젓갈의 꼬리에 화살을견우는 『활량』으로된것이다 天市垣을 이마우에 두엇스매 中國의天文學은 여기에다 『진』일세『거』일세 『말』일세 按排하야 米斗糧이 매우방은 모양이니 이것도 古代農業本位時代의 遺物임을 알려니와 北斗의 그것처럼 南斗에도 자못豪華로운 說話를 남겨잇다 史記天官書에 『衡殿』『南斗』를 말하야 『南斗六星이니 爲天廟와 丞相大宰之位』라

天下

고하데서 비롯하야 其他諸書에서 成明이면 君臣一心하고 和平하고 芒角動搖하면 天子가愁하고 兵起移徙하며 其臣이 逐하는 따위 미더야하겟다면 자못 不穩한 解說이 잇는바이다 『赤氣衝命之期』라고해서 南斗에 게 金한床대접하고 죽을목숨을 一期쯤늘엿다는 稗史小說이 잇는것은 讀者들도 記憶할바이오 『치』(箕)을 하면 바람이 나는지라 箕에는『主八風하나니 日月이 宿하면 風起』라는 流의 術數이잇다

× 『치별』의 首星은 東經百八十度 北緯三十度의 交叉點에 僞近하야 바로

冬至

點으로 되엇스니 歷象學上의 主要部이오 前漢末葉 秋七月旣望의밤을써서 『徘徊於斗牛之間』이라고한것은 여그가 黃道의 最南에 자리잡어 日月의 最南行路로 되까닭이다 銀河는 無數의 星團이라 이『활량』星座를 코지나 새로운 星團과 螢光星이 이 떠방생기는 고창이오 面積이 또한어 今古에 만흔 奇異한 現象을 나타 내엇스니 東西의 天文學者들이 珍重히녀기는것이 理由가잇다 한가지

挿話

가 잇스니 『유모어』한바이다 中國人은 예로부터 華夏로 自處하야 假傲하기짝이 엇섯스매 天象에 關하여서도 自己中心으로 解釋하엿섯나니 이를테면 晉書天文志에 五胡十六國이 神州를 沈의 할를 이르킨데對하야 『二石이 雖僭號ㅣ나 其强弱은 常占昴宿하야 不關紫宮 太微』라고 해서行動가를 胡兒의帝王으로는 紫微宮 太微垣의 正統的인 天體에 干與되지못하다고 하엿스나(此點胡羯에도마찬가지)그러나 그 流로써 떠진다면 『流星이

紫微

에들매 劉曜(漢王)이죽고 彗星이 太微를 범으매 苻堅이 敗하고 熒惑이 帝座를 직히매 呂隆(西涼三秦王)이 敗하얏스니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當時에는 自由的인 批判的 天文家가 이를 嘲笑한것이다 佛教信仰家로 有名한 梁武帝때에 熒惑이 南斗에 들엇스니 太史가占하되 『熒惑이 南斗에 들면 天子가 大殿에서 내려 다려날 징조 입니다』고 武帝가 마음이 죄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龍床을 뛰어내려 서푼리(禳)하엿더니 未久에

北朝

拓跋魏의 孝靜帝가 高洋의 亂을 맛나 不時에 廢黜되엿섯다 梁武帝는 이 消息에 깃부고도어이가 업서 『허! 오랑캐중에게도 天象이 應한단』? 하고 곤어이 맛을 다신는것이다 이것도 歷史上의 한번 爆笑할 價値가 充分하다

× 『젓갈』의 굽혀올라로 『覺尾』의 右便으로 넓고 큰 더런을 잡어 언뜻보기 중의 바랑처럼 十四五個의 三等을 主로한별들이 흘러잇고 西에서다시 한줄기 入九個별이 굴은배알므로들어진바 잇스니

前者

는『뎅칸』이오 後者는 『이무기星』이 구불불이 林巨正가튼 『皇巨』가 구비처는이무기를풀어 南天에 버티고섯것이다 中國의天文學은 이를全體로서 天市垣으로하고 中間에는 帝座의外에 市樓 車肆 帛度 屠肆가튼 一部市場을 여기에벌려 吳會(紹興)殷富한地方으로 對比하는것이다 太微紫宮이 모두 天子의 宮闕이오 太帝의 座席과 달려 天市垣은 『下元一宮』 으로 『民墨』 이니 『主權衡、主聚衆』云云하고 『天子之市니 天下所會也』라 고고

一流

의 解說을 붓첫다 近者蔣介石은 浙江의 出이라 吳會의富를 껴서 써天下에 覇하려하니 혹그 天市의 一帝座를 擬했든가? 아하하!

文學의擁護 (六)

作家와評論家의意見遞傳

抹消된人間性의發見

李軒求

오늘과가티 世界的 時代相이 極度의 不安과 焦燥속에서 資本主義的制度의 傳統을 持續支撑하기에 混亂을ㄷ끼여 自民族의運命을 危機의 前一步우에固定식히라는

苦悶

을 如何히 把握할가 하는것은 매우困難한事實일것이다。文學이라는 世界가 全人類의 至大한 關心的意義를 가지지 못하고 思想的後援ㅣ所謂 땃쇼的 風景에서 否定된 人間相 이란 完全히 抹殺되여 잇다。佛文壇에서 數年來 主唱되는 行動的人間 主義가 만일 오늘의 代表的 文學思潮라고한다면 그는 時代的雰圍氣의 重壓속에 幽閉된 人間의 解放이 그 全的 重要課題가 되지안흐면 안될것이다。人間이 일의 人間된 意義와 本分을 喪失하고 單純히 政治的 手段과 道具로 退化되야 非常時에는 한 個의 犧牲보다도 數히 評價되는것은 勿論 日常時에 잇서서도 生命을 支持해가기에 極히 不活潑하고

侮辱

된環境에 일으럿다。한 會社의 火災는 몃사람의 死傷보다도 重要文書의 그어느 한페-지가 그것이 어떤 重要秘密이라거나 潜在한 빗산 存在로 되여잇고 더욱 大實일자네 그는 全國民幾百萬의 生命에 比할것이다。이러케 人間的 存在가 가장 悲慘한 現實속에서 한마듸의 命令과 그한마듸의 反對때문으로 死活問題가 時時刻刻으로 決定되는 瞬間에서 이 致命的 徒刑囚의 悲哀와 悽慘을 吾人은 如實한 眞現속에 形象化할 그무슨 權限이 許與되여잇는가?

辛辣한 諷刺가잇고 超然한態度이 相互로 交錯되야 存在하는 必然性을

究明

할도 伶俐한人間精神의 現在的 產物일것이다。그러나 生活의 重壓을 忘却하며 瞬間的 安息의 오아시스를 차자 輕快한 고무風船에 매달녀 青空을 飛翔할수잇는 너무도 깨여지기쉬운 夢幻의 世界레뷰-와 映畵와 레코-드로 삼켜진 이全人類의 大部分을 如何히 救出할수잇을까? 무더운 思索과 暗澹속에 파뭇기지안는다 뱃속빈 明朗的 失笑와 無軌道的 行動에 驅馳되는바 이事實을 全幅的으로 描寫할 畵工을 그구누라고 指稱해야될것인가?

評論이라는 一分野에 蟄伏한 一人間을 假想할때 오늘의 文學이 假令心理的 潜在意識의 傾向이라거나 社會的 階級的 集團性의 主張이라거나 또는 新人間的 行動論이거나를

勿論

하고 그속에 表現된 現代的 時代相의 全面貌를 그대로 必然的 具現으로 首肯하야 論爲할수잇을까? 哲學的 思索의 모든 形態는 오늘을 充分히 說明하기에는 너무도 無力한 抽象的 觀念性에 糊塗되여잇다。一便 直接的 行動이 그것이 盲目的이건 意識的이건 가장 높히 評價되는 오늘에잇서서 그어떤 急激스러운 異變을 待望하는바 切實하고도 또 極히 機械的 慢性的 滅裂性이 膨湃해가는때 批判이라거나 부르지즘이라는것은 甚히 無意味에 가까워진다。分散에서 體系的 文化의 움직임을 把握하랴는 時代的聰慧는 그從錄이 極히 遲鈍하야저서 秋毫를 鑑別치안는듯한 그것이 實로 輿奪을 보지못하는

色盲

에일으는 悲劇을 또한 吾人은 얼마나만히 目擊하고잇는것도 否認할수는업다

우리는 로-랑이나 지-드에게서 새로운今日의 文學을 企待할수잇슬까? 끌키-에게서 明日의文學을 바랄수잇슬까? 버-너드、쇼오나 싱클레어와 가튼 오늘의 世界的 老大家의 文學世界가 果然 이 歷史的 契機에선 唯一의 文學戰鬪艦이라고 稱號할것인가? 아니 엘리오트나 페르낭데즈와 가튼 眼醫兒的 評家에게 또는 野心的이요 情熱的인 오늘의 젊은幾多의 作家에게 이時代的 雰圍氣의 彷彿한 灼熱彈的文藝作品을 企待할것인가?

文學은

制作

되고 生產되야 汎濫하리라 그러나 노아의 扁舟는 그누구일것인가? 스사로 運命論者的 告白에서 한거름도 더나갈수업는 非明敏性 非知慧性을 새삼스럽게 자랑하라는 이 極히 적음것이로되 反逆에서 反動에서 逡巡하고 退嬰되는바 群像이 하도 만하다는 嗟歎도 實로 오늘에 잇서서는 亦是 無力하기 짝이 업고 몸시도 窮한 줏이 되고말앗다。

그러나 主知的 또는 詠歎的 世界에서 떠나 人間革命의 拍車가 되기 爲하야 人間的 肉彈으로의 覺悟와 認識이 行動化實踐化할 過程으로 深化 激化하는곳에 이重厭된

混濁

의 雰圍氣에서 救出될 唯一의 方途가 잇다는 常識的이면서도 다시 吟味될바 先驅者들의 課題를 提出하는 平凡한 論하여야 할것이 아닐까? 文學과 人間과의 交涉이 그全體的 包括으로 나아가야하는 理論的 輪廓은 임이 唱道되엿다 하더래도 人間의 새로운 心理的 行動的 躍進에 對한 具現은 좀더 時日을 두고 모든 文化의 새面貌와 더브러 淸新한 驚異的 歡喜를 가저올것이다。

漢字의研究

朝鮮史上그地位 (一)

洪起文

朝鮮의 兩班들은 漢字를 빌어 한번 自己네들의 文化를 세운 뒤에 그 文化와 함께 漢字까지를 死守하려하얏다。비록 人人易曉의 訓民正音이 製作되얏지만 漢字의 神秘性 乃至 神聖性을 웨치고 부르지저 그 權威의 조그만한

侵犯

도 容許하지 안하얏섯다。要컨대 거긔에는 兩班文化를 싸고 도는 세가지의 秘密이 숨어 잇스니 첫재 그들은 過去의 傳統을 固執히 직히어야 하고 둘재 그들은 거룩한 中原을 一手販賣해야 하고 셋재 그들은 知識이 널리 떠지어 民衆이 漸次 聰明해 지는 것을 阻害 해야 되는 까닭이다。眞一 兩班文化로만 본다면 訓民正音을 製作한 世宗大王보담 그 製作을 反對한 崔萬理가 더 一層忠實한 것은 勿論이러니와 아모리 世宗大王이 諺文을 새로운 書體를 設立하야 諺文의 普及을 도모하려 하엿자 自己네 利害에 눈밝은 兩班 들로서 無條件 그를 [illegible] 노릇이다。

적어도 四五十年前까지 朝鮮語는 俚語요 漢文이 眞書다。俚語의 朝鮮語 또 그 俚語를 記錄하는 正音은 眞書의 漢文으로 因하야 숨도 크게 쉬지를 못하얏다。

그러다가 一八九四年以來 朝鮮에는 새로운

見解

와 새로운 생각이 侵入하기 시작하고 一九一九年以後 그 見解와 그 생각이 좀 더 굿세게 傳播된 結果 漢字와 正音의 地位는 드듸어 顚倒되지 아니치 못 하얏다。外來의 漢字를 使用하는 것은 羞恥요 無能의 漢字를 使用하는 것은 無謀라고 여기저긔서 떠들게 되는同時 正音의 價値이 갑작이 쏘다저 나왓다。外來의 漢字를 使用하는 것이 반듯이 羞恥일 [illegible] 使用하는 것만큼은 確實히 無謀다。지금으로 부터 漢字의 使用은 더욱더욱 줄어들미 잇슬지언정 다시 回復함이 업슬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朝鮮語의 太半은 漢字로써 맨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 現在 朝鮮의 모든 史實과 모든 文獻은 오로지漢字로써 記錄되야·잇는것이 아닌가? 設使 感情的으로 漢字를 侮蔑하야써 그 功을 나추고 그 罪를 誇張하는 사람이 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事實까지를 否認하지는 못 할것이 아니겟는가? 況且 過去의 朝鮮만이 漢字를 등지지 못 할 뿐이 아니라 漢字와 全東洋이 漢字로 떠부터 기픈 關係를 맷고 잇는 터가 아닌가? [illegible] 그 자최를 全的으로 [illegible] 하려는 사람이 잇다고 하더래도 이미 歷史上 남기어진 그 儼然한 자최가 살어질리는 업슬 것이 아니겟는가?

本來 우리는 漢字에 對하야 何等好惡의 感情을부칠것이아니다 그저 易曉의正音이 잇는以上難解의 漢字를 必要로 할 까닭이 업슬뿐이다 勿論 難解로써 易曉를 대신해온 兩班들의 心思가 얄밉지 안 할 수는 업스나 兩班에 對한 미움을 漢字에로 옴기어갈 턱은 조곰도 업스리라고 생각한다。또 아모리 兩班의 그 心思가 밉고 밉더라도 이미 歷史化한 事實을 敗棄하거나 沒却하여서는 안되리라고믿는다。

그럼으로써 漢字의 制限乃至

撤廢

를 主張함은 可하되 그 傳說 乃至 歷史를 [illegible] 것은 可치못하다。그와同時에 漢字의 實際上 使用을 拒絶함은 [illegible] 그 功績과 必要까지를 拒否하는 것은 勿論 可치 못하다。

小品 季節의表情 (1)

李善熙

벌서 한낫은 지낫슬 터인데 마을엔 애들 떠드는 소리하나 업섯다。각금 엿장수의 가위소리가 들녀올뿐으로 아직 우물에 찬냉수 뜨러오는 아낙네 조차 업는모양이다。

『조흔 비녀들이나 댕추나 뒤꼬지를 사시요』

길고 느린소리가 마을 한복판을쪽-찌르고 흐른다。

나는 정신이 번적들어서

『어디봅시다 입분거 만하요』

차고 맑숙한 감각이란 여름날의조흔 淸凉劑다 그러므로샹큼하고 날신한 『캇퍼쓰』琉璃잔의 魅惑이 업섯는들 우리의여름은 좀더 우울햇스리라。

琉璃萬歲!

琉璃勝利!

즐거운 琉璃行商人은 나올긴 여름날 조름에서 완전히 구원햇다。

『이거 얼마요?』

희고 대가리가 복숭아 처럼 둥글게된 탐스러운 비녀 한개다

『이십전만 줍시요』

『남은 다십오전에 산다는데 이십전이래』

나는 목을 외로 꼬고 못맛당하다는表情을 지엿다。

실전 오전 일전……

가락지 뒤꼬지 댕추 이러케갑싼 노리개들이다。그러나 五色이 玲瓏한 이 琉璃細工品들은 나나 이웃집 각씨나 저건넌집 색씨에게 잇서서는 결코 그러케 갑싼 물건이 아니다。

나드리 人造항나적삼의 파란댕추 공단갓흔 머리쪽에 온갓치장 우리들은 다른데서 그호사를 구하지못한다。

그러므로 마을에 각씨들은 그 남편의하로 六十錢 四十錢 三十錢의 버리에서 한푼 두푼 모히기를 잊지안는다。그리고 이러한 行商人이 지나가는날을 기다려 그들의 노리개를 장만하는것이다。

나는 오늘 이 장사가 결코 우리마을에서 푸대접 맛지안을것을 밋는다。

寶石!

루비 사파이어 따이아몬드 팔쓰 美의神의 첫선물이다。

녯날의 모든 아름다운 公主나 公爵夫人들의 大理石 섬섬옥수에서 오직이나 만흔 사랑과 꿈을 비저내엇슬가 中世紀의 戀愛와 로맨스를 얼마나 찬란하게 占첫슬것인가。

寶石으로부터 寶石—寶石으로부터 나는 또 내생각을 떠돌어 이러한 이약이를 차자냇다 『몬나、반나』

아름답고 堅固한城을 가진城主의딸도 지극히 귀여운 公主가잇섯다。

어느날 내로라하는 寶石商은 이城을방문햇다。이寶石商을 따러단니든 金髮의 美少年은 麗한 公主인 몬나 나를 맛낫다。

이때 몬나 반나는 금가락지를 못속에빠트리고 울고잇섯다 少年은 용감히 물속에 뛰여드러 다시少女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여주게되엿다。

그後—오랜세월을 두고 이 不幸한 少年은 그날을 잊지못햇다。

오즉 한번의 溫柔조차업는 사랑을 품고 그의 젊은날의 野心은 컷다。

마춤내 그가 크게成功하는날 그는 自己의 名譽와 生命을 代價로 보다 반나를 그의 新婦에서 맛날든것이다。

나는 이런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문득내겨레서는 寶石商人들의 꿈을 보앗다。

三伏炎天에 지글지글 타고의 온종일에 주머니 가득 건 『琉璃寶石……』

나는 내심여인 생각에 우슴이어져 견딜수업서 우섯다。

그는 화려한 宮殿의 寶石사이를 드나들든 高貴한 寶石商人도 아니오 悲戀의 기주을 가슴에 서리고잇는 浴鬻한 美少年도 아니다。

오직 나나 이웃집 각씨나 저건넌집색씨의 오전 실전을 바라고 단니는 우리들의 가난하고 허잘것업는 商人이다。

探報臺

巴里의國際文化擁護聯盟

佛蘭西의 文學이라면 맛치 溫室속에서 피여난 어엽븐 꼿과가티 아는것이 한개의 通常觀念과가티 되여잇다。그리고 이러한 觀念은 『頹廢的』이라는 觀念과 항상 對照的인것이다。그러나 『허물퍼』의 反文化的猛擊이 나날이 그威勢의 尖銳를 모르는데 따라서 溫室속에 피여든 어엽븐꼿도 인제는 暴風雨압헤서 그곳의 한숨기와 눈물 香氣를 낫타내이지 아니하면 안되게되엿다

그래서 우리가 享樂과 頹廢의 都市로 想像하든 巴里에서는 지난六月에 國際作家文化擁護大會가 열렷다고한다。

勿論 거긔에 모힌사람들중에는 그『이데올로기-』에잇서서 아모런 統一性이업다고하드래도 오늘날 世界的으로 澎湃하고잇는『파씨즘』의 非文化的인 統制에 對해서 참으로 文化를擁護하려는 情熱과 誠意는 그네들이 國際文化擁護聯盟이라는것을 組織하는 구든紐帶가되엿든것이다

그러나 여긔에서 우리네 注意를 끄으는것은 거긔에 出席한作家中에서 大部分은 일직이 우리가 小뿌르조아作家라고 부르든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이네들은 이때까지 比較的安閑한地位에서 社會的優待를바 드든것이다。그러나 오늘날의 客觀的情勢는 이네들까지도 時代的意欲에 눈뜨지아니치못할뿐만아니라 일직이 이네들의입으로 政治와는 無關한 한개의文學者라고하든것이 인제는 文化를爲해서 政治的前線에 나서다는것이다

이땅의 良心잇는 作家와 評論家들은 이러한事實을 눈압헤 보면서도 아모런 刺戟도 늣기지안는가。(如水)

米國의學生氣質 (1)

李定根

太平洋을건너거까지

一九三〇年 十二月 農村이나 都會가 다가티『不景氣』의 渦中에들어가며 精神을 채리지못할 그때에 나는故國을떠낫읍니다。그當時渡米準備를하든 나는 몰려오는經濟恐慌을보며 發程을 躊躇하지아니치못하엿스나 몃親友 더욱히 黃兄의激勵와周旋으로 萬難을除하고 마춤 十三日밤을 期하야 京城驛을 出發하엿습니다。

그날밤에 나를보내주시는 親友들과 내가가라치든 學生들이 사랑과熱情으로 一路平安을빌어주며 將來成功을念慮하야 주시는 가지가지의부탁은 나의부질업는 遠行의謙愼을 덜어주는同時에 勇氣를 한層더 도두어주엇습니다。

途中 東京서 一個月을 滯留하게된것은 事情이 그러케만들엇음으로 엇지할수업는 일이엿섯고 이가려 一個月이 늦은동안에 旅行券에指示한 出發期日은 迫頭하야 豫期하엿든 定期旅船을 타지못하고 적은 商船을타게되것은

遺憾

이엿습니다。내가 탓든 商船은 七千七百噸바게 되지못하는 大阪商船會社의『보루도-마루』이엿는데『하와이』를 들니지 아니하고 桑港으로 直航하는 배엿습니다。太平洋上의 樂園이라는 『하와이』를 보지못함이 엇지遺憾이라 하지 아니하겟습니까、그러나 船價가 比較的 低廉한데다가 待遇가 상당하고 또 一等이라는 等級이 되기때문에 下陸할때에는 便宜가 노상업지안헛다고 하겟습니다。孤寂하기를하엿스나 오히려 豪奢스러웟다고하겟습니다。

橫濱서 배를 타기는 一月十七日이엿습니다。東京留學하는동안 萬般의 便宜를주신 朝鮮日報東京支局長 金兄은 社務에 多忙함에도 不拘하고 橫濱埠頭까지 나와주셧습니다。埠頭는 그리複雜하지 안엇습니다。甲板上에도 亦是 閑暇하엿습니다。

乘客

이라고는 나혼자 가 甲板우에 초조히 섯섯고 餞送하는이는 金兄 혼자가 乘組員의 家族들中에 끼여 잇섯슬뿐입니다。겨울하늘 검붉은 저녁노을이 랄때에 一葉片舟는 茫茫大洋을 向하야 머리를 돌렷습니다。

이『보루도-마루』가 하와이를 들리지아니하고 橫濱서 桑港까지直航하는데 每日三百哩 乃至 三百三十哩의 速力으로 十四晝夜를 要합니다。바람과비는 一週間을 繼續하엿고 波濤는甚하엿습니다。初航하는 사람은 할수잇스면 海洋이險한 冬節을避하는것이 조켓다고 생각하엿슴니다

太平洋을 건느는데 二週間바게되지안는 짧은 時日이지만은 大陸生活과 趣味를 달리한海洋生活을 맛보게됩니다。

隨時

로 展開되는 山河名勝과 人物 風俗의 變遷을 目睹하며 見聞할수있는 古今東西的 新鮮味를 맛보아 日常生活에 倦怠한 頭腦를 一新케 함으로 旅行의 價値를 喪失케하는 수가 잇지마는 大洋을 건너가는데는 陸地와는 全然反對로 天體의 運行은 도모지 업습니다 보이는것은 하늘과 가없는 海洋으로 비이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波濤요 들리는것이 바람에 밀리는 물결소리뿐이외다 自然의 偉大를 보며 神秘를 感하지안을수업스며 一點生의 存在를 忘却케되니다 이러한 海洋生活은 將來發展에 展開되려는 新興氣分에 對한 太平洋의 偉大한 存在는 無限한 存在가 아이라고 생각하얏습니다。

定州城 (詩)

日石

山에 원두막은 뷔엿나 불비치외롭다

허정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의

쪼 눈소리가 들리는듯하다

잣자리 조을든 모여진밭레

반딧불이 날다 파란魂갓다

어데서 말잇는듯이 크다란 山채 한마리가

어둥운 골작이로 난다

헐리다 남은城門이

한울빗가티 퍼 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며기수영의흥이가

정배흥타며 올것이다

(八月二十四日)

電波를타고온學藝消息

大阪에서 旅行할때에는 車窓을通하야

世界的暴風에抗하야 『쯤씨파』 米國을防衛하라!

『업톤·씽클레어』氏의 政論演說

『시아틀 聯合新聞』 左翼作家로서 또는 政治家로서 有名한 업톤·씽클레어氏는 近著에 講演을하면서 自由의나라 아메리카가도 結局은 全世界를席捲하는 땃씨즘의 暴風에 抗拒하지못할것이라는것을 指摘해서 多大한注目을 끄으럿는데『씽클레어』氏의 말은 다음과갓다。

『米國에서 『땃씨즘』의 暴風을阻止하는 努力은 近者一、二年間의 일인것이다。自己의본바로서는 獨逸에잇서서의『땃씨즘』이 擡頭하엿슬때 活動한바와갓튼힘이 現在米國에도 作用하고잇다。『히틀러-』는 社會主義的데모크라시-』의 挾殺者일뿐만아니라 勞働運動과 共和國獨逸의抹殺者이다。그럼으로써 自己가政治運動에 投身하엿든것도 實狀은『히틀러』가 政權을獲得하엿다는데서 刺戟된것이다。

본래『땃씨즘』이라고 하는것은 엇더한 나라이든지 民衆의誤解와 偏見을利用하는곳에 成立되는것이다。獨逸에잇서서는 그것이猶太人에對한 憎惡이엿고 米國에잇서서는 『赤色』에對한憎惡이다 『땃씨즘』은또한 大企業과 死活的으로 密接한關係를 가지고잇다 例하면 伊太利의『땃씨즘』과가튼것은 米國의資本에依해서 支持되여잇는것은 明白한 事實이엿스며 獨逸에 잇서서의『나치쓰』는 軍需工業과 密接하게 結托되여잇는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米國

木俣氏彫刻 『構造社』入選

지난六月 本社主催인 新聞展覽會에잇서 彫刻以外 여러가지 方面으로 만흔 協力을하야준青年彫刻家木俣三郎氏는 今番東京上野府美術館에서 열리는 第九回展覽會에 『首』의習作을 出品하야 入選되얏다。同展覽會에는 搬入總數 四百三十八點에 이르럿스나 入選이 八十二名이요 그中 新入選이 겨오十八名으로木俣氏는 그新入選의한사람이다。

曆

八月三十日(金) 舊八月建乙酉(大)初二日

戊寅·土·牛·破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新刊紹介

▲農村之光 八月號 京畿道地方課內 京畿道發行 定價一部一錢

第一回 全朝鮮男女音樂懸賞競演大會

開催時日 九月十九日(初選) 同二十日(公開豫選) 同廿一日(公開決選)

『申請期限』 八月末日까지(本社學藝部로) 『場所』……本社大講堂

『曲目』

『獨 唱』 들어라 종달새、오-내사랑、꿈을딸하서

『피아노』 베에산 뽀트쏭、소나타七二、마즈르카

『바이올린』 레겐데、안단류차、콜니드라이

콩쿨樂譜集定價五十錢(送料六錢) 本社庶務部에서頒布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審査員 『聲樂部』玄濟明、金文輔、…『피아노部』金永煥、朴慶浩、『바이올린部』洪蘭波、桂貞植、蔡東鮮、…『詳細事項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後援 朝鮮音樂家協會

◀朝鮮文學社藝術叢書 第四十四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文學社發行 振替京城二〇二三番 定價六錢

◀新少年 九月號 東京府 日本新少年社發行 定價二十錢(送料)

黑風

韓龍雲 作 / 金熊超 畵

리별 5

이튿날 아츰에 왕한은 여러 동지들을 따라서 정거장에 나다낫다 그보다도 먼저가서 기다리는것은 콜난이엿다 콜난은 실로 그날 시카고 정거장의 꼿이엿다 쫄래드는중에 가득한 승객이나 역원(驛員)들 까지라도 누구하나 콜난을 유심히 보지안는 사람이 업섯다 일부러 콜난의엽헤 대어서는 사람도 잇고 콜난의 압흐로 가서 롯지서면서 콜난의 얼골을 보는사람도 잇고 바른지점을 크게하야서 콜난으로 하야곰 자기를 처다보게 하랴는 사람도 잇섯다

『도저한테』

『독 땀주나』

『자르르 흐른다』

『그야말로 꼿이로군』

엇든빈득한 젊은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새어나왓다

콜난은 왕한을 보내기에 괴로움고 아는사람들이 자기의왕한에게 대한 태도를 주목할까버서 부끄러운 중에 여러사람에게 그러한 광경을 밧는것은 견될수업시 불쾌하얏다

콜난은 태도를 평범하게 가저서 다른사람들로 하야곰 심상하게 보도록 하랴고 애를썻지마는 마침내는 그러케되지아니하얏다 왕한의 리별에 대한 스름과 고롱 다른사람들의 주목에 대한 부끄럼과 불쾌그러한 복잡한 감정으로부터 나타나는 태도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야도 천연스럽지 못하얏다 콜난은 얼골에 나타나는 표정과 몸가지는 태도가 이상할수록 다른사람들의 주목은 더욱 심하야지고 자기는 더욱 곤난하엿다 그리하야 콜난은 왕한에게 가까히 가지도 못하고 왕한을 자조 보지도 못하얏다

왕한은 차에 올랏다 차 떠나라는 차이롑은 울기시작 하얏다 동지들은 낫낫치 왕한이와 악수를 하얏다 콜난이도 왕한의 압흐로 나아가서 부끄러움압흐로 드리워서 무릅에다 대이는듯하고 작별의 인사를 하얏다 그러나 왕한의 얼골을 마주보지는 못하얏다 그것은 왕한의 얼골을 마주보게 되는때에는 울지아니하면 견댈수가 업섯슴으로 목구녕까지 나오는 우름을 참고잇는 까닭이엇다 차이리는 세번이 낫다 기적소리에 젊은연기를 토하는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얏다 왕한의 동지들은 손을 들고 만세를 불너다 왕한은 차창으로 상반신(上半身)을 내어밀고 모자를 두르면서 동지들에게 답례하얏다

콜난은 처음부터 서름과 부끄럼 틈에 얼키어서 울고한 시프지마는 남의 이목에 거리껴서 우름을 삼키고 숨을 돌려가며 참어온것이다 그러나 기차떠나기 시작하고 동지들의 만세소리가 나자 왕한의 최후의 말래가 잇는때에는 전신의힘을 다하야도 도저히 터저나오는 우름을 참을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illegible] 급한 눈물이 쏘더지든 아니 마친 소리가 터저것처럼 [illegible] 소리가 입바그로 나오게 되얏다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손으로 눈물을 시첫다 콜난은 고개를 돌려서 사람의눈들을 피하랴고 하얏스나 롬내든눈들이 [illegible]질듯이 모여잇는 전송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고개를 돌릴 한 빈곳은 업섯다 기차는 차차 속도(速度)를 더하야 [illegible] 기차를 아니보고 눈물가리고 울기만할수는 업섯다 콜난은 [illegible] 적은힘으로 가는기차를 어매지는 못하얏다 불근 눈물(紅淚)만을 기차에 시러서 왕한과 가치 곡국으로 보내엇다 눈물에 어리어서 몽롱한 콜난의 눈은 기차연기를 따라서 가는대로 갓지마는 그연기가 사라지는 곳에서 길을 잃고 [illegible] 도라와다 콜난은 정거장을 나오면서 기차의 가든길을 몇번이나 도라보앗스나 굽이친 산허리에 도라가는 조각구름이 걸리어잇슬 뿐이엿다 아침 연기를 둘로 쌍쌍히 날어가는 적은 새들은 어대로 가는지 알수가 업섯다

注目되는山地開發 一部明春부터實施

甲山、三水、豊山等五個郡에는 基本調査에着手進行

【咸興】세인의 이목을 한데 집중하고잇는 함남 산지대 개발계획은 방금 착착 진행되고잇는 중 그일부인 농업개발은 명춘부터 실행하기로 결정되엿는데 그계획이 극히 막대하니만큼 이를 실행함에 잇서서는 상세한 실제조사가 절대 필요함으로 군청기술원을 중심으로 면산림원협력하야 현경지의 고저와 경사정도 작물재배분포상황 재래경작방법 농산물의 운반도 등을 전면적으로 구입할까지 조사를 필할예정인바 갑산 삼수 풍산 장진 신흥의오개군은 발서 조사에착수하엿다 한다

碑石里엡웟少年會 創立記念盛況

【鎭南浦】진남포비석리 엡웟소년회 창립삼주년 기념축하 음악 영화회를 지난팔월이십육일 하오팔시반 당지 비석리 례배당에서 오주린(吳周麟)군의 개회사가 잇슨후 파랑새(靑鳥)라는 영화와 김원호(金元鎬)군의 바요링 독주 기타 회원중에서 취창등 자미잇는 순서가 잇슨후 동열시반에 폐회하엿다 한다

兩年間繼續事業 宣仁洞街路整理 工費八千圓豫算

【泗川】경남 사천면(泗川面)에서는 거이 시가도로 정리가 완성되엿스나 시내선인동(宣仁洞)일부분이 미성되엿는바 소화십십일량년간 계속사업으로 총공비 오천원을 예산하야 금년도부터 공사에착수키로 되엿다 그러데 이도로의 정리공사를 착수한다면 가옥의 피해를 당할 호수는 삼십여호수인데 그중 이십여호는 일부의 파손을 당할것이요 십여호는 전여 희생될것이라하는바 그들에게 한하야는 약간의 보상이 잇스리라 하나 그것은 이전비에 불과할 뿐이며 원래 해지대가 빈민굴 이니만큼 실로 그들의 전도가 막연할것이라고한다

後夫의사랑엇고저 前夫所生을投江 警察에發覺嚴調中

【春川】강원도 춘천군신북면우두리(新北面牛頭里)이백이십삼번지 홍순의(洪淳義)처김씨(金氏)(二一)는 일즉이 유모라는 사람과 부부생활을하다가전긔홍씨에게로 개가하얏는데 김씨에게는 전남편윤씨와의 소생인 윤정인(尹貞仁)(一)이라는딸이 잇서서 이래홍씨가에서 동거하던중 전남편의 소생이라는 리유로 홍씨는 그딸을학대할뿐만 아니라 그딸로 인하야 부부간에 의가상하야도저히 평화한날을 보낼수가업섯다 그리하야 마츰내 김씨는 차라리 그딸을업새고 남편의 사랑을 맛겟다는생각으로 지난이십사일 오후한시경에 북한강우두강안(北漢江牛頭江岸)에서 어린딸을 깁흔물속에 던저 죽인것이 탄로되여 김씨는 목하소관춘천경찰서에 피검되여 취조를 밧고잇다한다

唐津의豪雨被害 總面積千餘町步 損害額이三萬餘圓

【唐津】당진지방에는 지난 이십이일밤부터 나리기 시작하야 약 팔시간동안 계속한 폭우로 인하여 전답손해가 막대하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조사한바에 의하면 매몰된 전답이 일천이백오십사정륙단이고 손해총액이 삼만륙천일백사십팔원에달한다고한다

凉秋九月을卜하야 名勝金剛山探勝 本社甕津支局主催로 —探勝團員을募集—

【甕津】금강산은 세계적공원으로 명성이 놉흐나 우리는 항상 생활에 부닥기며 경제에쪼들니고 잇는 신산한 세무(世務)에끌려서 금강산을 실지로가서 보지못하고 다만한상보기를 원하며 동경(憧憬)하고잇는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 본보옹진지국에서는 우리의적년숙지를 결행코자 금강산탐승단을 모집하기로되엿는바 여러유지는 이긔회를 일치말고 긔일전에 다수히신청하여주기를 바란다하며회비는 왕복차비 식비그넘사진찰영비등을합하야 일인당사십오원으로하고 기타비용은 각자부담

大鄕洞靑年들의 文盲退治努力

【鏡城】함북경성군 주을온면대향동(大鄕洞)에서는 당지 청년 안창섭(安昌燮) 김우송(金禹松) 동제씨의 노력으로 문맹에 우는청소년 삼십여명을 모집하야 지난팔일부터 이십일일까지 삼주일간을 당지학당에서 개강하고 한문과자등을 교수하엿슨데 그효과가 크다한다

三年前殺人犯 新義州에서押來

【鐵原】삼년전에 주석(酒席)다툼으로 인하야 철구공이로 사람을타살하고 교묘히 수사망을 버서나서 도주하엿다가 요사이에이르러 법망에걸리여 취조를 밧고잇는사건=지금으로부터 삼년전인 소화팔년오월이일 오후여섯시반경에 철원군사요리(四要里)류모득(柳謨得)음식점에서 피해자 철원군남일면 월하리(月下里)에두고 고물상(古物商)을경영하는 김복만(金福萬)(二五)이가 고잇든중 가해자 원적을 평강군남면 저연리(平康郡南面渚淵里)에두고 철원군 사요리(四要里)일백삼십삼번지에 거주하는 황수천(黃壽千)(三七)과 사소한일로 싸홈이 시작되여 가다툼으로 해자황수천은 부엌에잇든 절구공이로 피해자김복만의 좌두부를 란타하야 다량의 출혈이되여 익일 오전두시경에 드듸여절명되자 범인은즉시도주하엿슴으로 철원경찰서에서는 각경찰서에 명수배를하는일방 비상선을 느리고 엄중수사하엿스나 교묘히 수사망을 버서나서 만주방면으로 다려낫다가 지난 이십일신의주서원의 손에 체포되여 이십사일 철원경찰서로 압래하여 방금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裡里邑道路鋪裝 施工面積이萬餘平方米突로 九月中에完成豫定

【裡里】리리시내의주요도로포장공사는 과반총독부로부터 인가지령이 나려 지난십일부터공사에 착수하엿다는바 총공비는 일만원으로 일만칠백구십륙평방미돌의 공사를 오는구월중까지 완성할예정이라고한다

密陽蔚山間道路 完成促進陳情

【密陽】경남밀양군과 울산군은 량군산업상 가장 밀접한관계에잇슴에도 불구하고 량군을 련락하는 불과팔키로의 량군사이에 가로노힌 밀양군 산내면(山內面)의 석남령(石南嶺)을넘는 도로가 완성되지못하야 량군산업발전상 또는 교통상 적지안흔 저해가됨으로 량군군민은다년 그완성을 요망하여 오든바 지난번 경상남도 도회의석상에서도 동도로 완성에대하야 결의한바 잇섯슴으로 이긔회에 긔어히 그목적을 달성코저 량군군민이 합력하야 불일간 요로당국에 진정하라고 준비중이라는데 동도로가 완성되는날에는 밀양에서는 풍부한북물 목재 신탄 과실등 울산으

다대하리라한다 그리고 일면으로는 밀양군단장면(丹場面)의 재약산(載藥山)을 넘어 울산군에 드러가는 도로도 매우유망하다고한다

數千住民의恐慌 洑浚渫遲延으로 當局의無誠意를非難

【韓山】수천농민의보고(寶庫)이며 활명천(活命泉)인 보(洑)의 준설문제로 인하야 일반면민의 여론이 날노비등하며 관계당국의 무성의를분개하고잇다—충남서천군한산면송곡 단상 월산등 각리의보(舒川郡韓山面、松谷、丹上、月山各里洑)는 남북으로 관류하는 구동천(九洞川)은 수구(水口)의협착과 노초(蘆草)의밀립으로 인하야 매년하긔에는 사저업는 홍수로 인하야 연안 수백정보의 옥토가 십여일 혹은이십여일식 침수되여 모든 신혈을 다하야 지은농사가 일조에 만흔피해를 당함으로 관계 수천주민들은 오륙년전부터 준철을 고조하여 일편 관계당국에 대하여도 루차진정하엿다한다 그러나 오륙년이 지난금일까지 준철은 커녕 여긔에대한 대책조차 업다하야일반의 물의가 자못 놉흔터면관계당국의 무성의를 분개하고잇다한다

義州署管內에 强、窃盜橫行

【義州】의주군주내면홍남동(州內面弘南洞)일백오십번지에사는 김경찬(金璟燦)(三七)은 지난이십사일에 의주장에 왓다가 때늦게 밤팔시경에 자긔 모친원씨(元氏)(六〇)와 한가지로 소를사기위하야 룡만금융조합(龍灣金組)에서 출채한 사십여원을휴대하고 시외남산 부근을 지내든중 으슥한 수풀사이로부터장정한명이 내달아 곤봉으로 모자를 란타하고 현금사십일원오십전을 강탈 도주하엿슴으로 현재의주도립의원에 입원치료중 노파는 생명이위독하다 하며지난십일 시내구성동 최도은외한집에서 도일백륙십원을절취한일과 도이십이일 남문안선명사진관(鮮明寫眞館)에서 일백삼십원가치의 사진긔를 절취하는등 무인지경처럼 활보횡행함으로당지경찰서에서는 범인들을 엄탐수사중이라한다

期成會를組織하고 市場移轉을運動 安溪市有志들이

【玉宗】경남 하동군 옥종면 안계시장(河東郡玉宗面安溪市場)은 궁벽한곳에 잇서 교통이 불편하고 짤아서 협착하야 장날마다 불편이 막심하며 희망도업스므로 도、군、면당국에 위치이전을 연명진정까지 하엿스나 면의 사정으로 이전이 실현되지 못하므로 지방유지의 발긔로 지난 팔월이십오일에 안계시장 위치변경긔성회(安溪市場位置變更期成會)를 면민이 모여동면 청룡리(靑龍里)에서 조직하얏는데 금후목적달성을위하야 적극적운동을하기로 일치가결하엿다하며 당석에서 다음과가튼 금이 모여들러 예긔 이상의대성황을 이루엇다。

三百圓 權相谷 百圓 張甘誠 七十圓 梁海龍 六十圓 李文煥 四十五圓式 白雲起 鄭龍和 三十圓式 安夏範 梁在珍 鄭曝和 二十五圓式 河王聖 鄭煥喆 十五圓 梁有文 五圓式 河萬植 李鉉顯 李鉉大 五圓 以下略

第四回—黃海道 基靑男女修養會 來三十一日부터一週間 信川西部敎會堂에서開催

【長淵】긔독청년의 지식계발과 정신수양을 주요목적한 황해긔독청년면려회 주최 제사회황해도 긔독청년 남녀련합수양회는 금월이십구일부터 개최코저 동실행부에서는 만반준비에 분망중이든바 당국에서 이십구일과 삼십일에는 일체개회를 금지함으로 부득이 삼십일일 오전 팔시 삼십분부터 신천읍서부교회당에서 개회할터인데 금번 수양회의 표어는노국세라라는표어로서 강사는 임종순목사(林鍾純牧師) 채필근목사(蔡弼近牧師)량씨인바 긔독교의 권위자로서 동수양회는 성황을 예기하는터인데 수양회긔간에는 경건회 강화회 토의회 강연회 음악 영화회 정구 탁구대회 선유회등 여러집회가잇서서 매우 자미잇슬터이라한다

製絲操短實施로 五十餘職工失職 九月一日부터實施

【咸興】전조선각제사공장에서는 오는구월일일부터 일제히 일할단소(操短)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엿는데 함흥에잇는 편창(片倉)제사공장에서도 현재직공오백삼십여명중 일할인오십여명에각 수실직하게되리라고한다

地方人事

▲坂本三郎氏(安東邑長) 轉勤人事次本社大邱支局來訪

▲申浩均氏(東京日報東京支局長)과金信浩孃(東京武藏野音樂出身)의結婚式은二十六日午後六時平壤府內白善行紀念館에서擧行

▲岸巖氏(前朝鮮銀行平壤支店長)退職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그女子의一生 (184)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畵

어떤 날밤에 삼천동 금봉이 집에 웬 로파 하나가 들어와서 지나다가 집구경을 들어왔느라고 두리번거리다가 나가버렷다。

『미친 년이로군』

하고 할먼이 대문을 걸면서 중얼거렷다。

『거 웬 여편네야?』

하고 금봉이가 안ㅅ방에서 나서면서 물엇다。

『모르지요。 무엇을뭇지도 들어왓는게지오』

하고 할먼은 대단히 불쾌한모양이엇다。

『나가보아요、어듸로 갓나?』

하고 금봉이도 마음이 안 노혓다。

할먼이 대문을 열고 나갓다가 한참만에 들어오더니、

『어듸로 갓는지 모르겟서요。저 우으로 올라가는것도갓고』

하고 말앗다。

어린애도 일코 파진이도 아니 오고 하는 이 집에서는 고양이가 하나 지나가도 큰 사건이것 가탓다。 이 집이야말로 모든것이 초상난 집 가탓다。

홍씨의 장례가 끗난 이튼날 팡진이 술이 취하여서 금봉의 집에를 왓다。 그는 친구들에게 끌려서 등남레와 상처한 축하연을 내인것이엇다。

『팡진이는 상처할 팔자까지 탓네그려』

하고 그 친고들은 팡진을 놀렷다。

금봉은 무엇이라고 인사할 말을 찾지못하야 잠자고 잇섯다。

팡진은 집에 들어오는대로 금봉을 희롱하기 시작하엿다。 금봉이 그것이 심히 불쾌하엿다。제안해를 『파무든것이어젠데、하면 구역이 나도록 팡진의 음탕한 행동이 실혓다。 그래서、

『어린애는 왜 안보내시오?』

하고 노긔를 띄고 소리를 질럿다。

『어린애? 우리 아듭? 어머니가 내 노시낭 한시각도 안보시고는 못 사신대。허허』

하고 팡진은 무슨 조흔 수나 난것처럼 깃버하엿다。 금봉은 더 말하고십지도 아니하엿다。 팡진은

『금봉이、우리 마누라、허허、우리금봉이가 웨오늘은 새츰햇서? 고게 더 잇브지』

하고 십업슨 소리를 중얼대면서 팔라、녜다어、앙달은 이리저리 벗어 던젓다。

금봉은 천과 가터 그것을 바다서 양복장에 제국제국 너흘 생각도 업섯다。 파진의 입권에서 나는 술냄새와 그가 쉬입새업시 중얼거리고 꺼꾸러는 실업는 소리가 모도 불쾌하기만 하엿다。

『나를 무얼로 알어!』

하고 금봉은 속으로 괘심하게 생각하엿다。

파진은 냉수를 두 대접이나 마시고 금봉이더러 다리를 밟으라는등、어깨를 주물라는등 가즌 지랄을 하다가마츰내 잠이 들어버렷다。

금봉이도 어설푸레 잠이 들려고 할 즈음에、

『문열어주오』

하는 여편네의 소리가 들렷다。

『자정이 지낫는데 누가 왓서?』

하고 할먼이 중얼거리며 대문으로 나가는 발자욱소리를 들으면서 금봉은 『가회동서 왓나보군』하고 혹시 어린애가— 아닌가 무슨 병이 나지나 안앗나 하고 가슴이 울렁거렷다。

빼거하고 문여는 소리가 나자 룽룽룽룽하는 사내 발ㅅ자욱소리가 들렷다。금봉은 누굴까하고 고개를 들어서 귀를 기울일 때에 벌서 안ㅅ방 지게문을 와락 열어제치고 들어선것은 금봉의 남편 손명규엇다。

금봉은 모시젼니불을 막써머리를 감초앗다。

명규는 초록 생초 모긔장을 떨리는 손으로 득잡아당긔엇다 그리고는 덜덜덜덜 떨면서 세상 모르고 자는 팡진의 얼굴을 물꾸럼히 들여다보앗다

명규의 눈과 입은 찌그러지고 씰룩씰룩하엿다。

털이 마히 난 큰 손에는 번적번적하는 칼이 떨고잇엇다。

명규는 향항으로 싱가폴로 일년남아 헤매다가 모도다 실패하고 아편장이가 되어가지고 입주일쯤전에 서울에 굴러들어와다 안해 금봉이와 딸 정선을 안아보리라는 유일한 희망을품고 그러나 그는 안해가 팡진의것이 된 사정을 뜻고는 연놈이 한방에 들기를 기다리고 로파 하나를 사서 엿탐을 시키다가 오늘이야 그 긔회를 차즌것이엇다。

電話增設廣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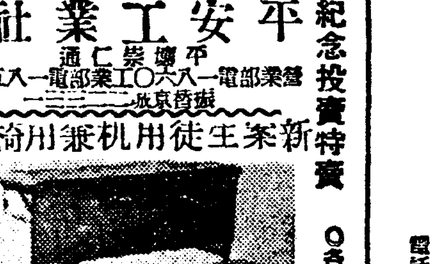
謹啓從來本車部에서 電話四四番、一五五五番兩番을使用하여왓습니다만 愈位의愛顧하여주신喜築하야業務는日益擴張됨니다따라서電話二番로는不足이잇기로最近二四番을增設하엿사오니倍舊下命하여주심을바람니다

平壤旭町 平安タクシー 電話 一四三 一五五五 四四番

開業十五週年紀念投賣特賣 寢臺專門 ○各學校當局者大好評

平安工業社 營業部電話一八六〇 工業部電話一八五五 振替京城一二二二 平壤仁興通

新案生徒用机兼用椅子 割引券謹呈 型錄進呈 自七月十五日 至九月末日



수어지版鐵脚製이지만 從來木脚式보다安價

普校一二年用	一組	¥4.30
同 三四年用	一組	¥4.70
同 五六年用	一組	¥5.30
中等學校用	一組	¥5.90

箕城醫學講習所生徒募集

▲醫師醫生試驗問題解答集發行

一、速成科 八十人 開學日 十月十日

一、出願期日 昭和十年十月七日까지 詳細事二錢切手添付申込次第送呈

平壤府館後里一七一 電話一六三二番

남에게말못할淋疾 ネオヂリン(네오지린)으로고치시라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振替京城四五七番

●腦의疲勞● 執務者 工夫 學生 勞働者 徹夜 頭腦 等의 過勞時에 ノーシン(노-신) 服用하라 복잡한 頭腦의 疲勞는 迅速히 快復 明快 해지며 快活하여 集中力이 생기는 安全한 藥 全國藥店에 잇습니다

第一劇場

八月二十九日부터 三日間特別大公開! 新築落成開館第二週!! R、C、A 內燃發聲機完備! 新興豪華版堂堂上映 每日晝夜三回公開 始映時間十二時、三時半、八時

新興키네마、高田프로合同 超特作品(無聲版) 現代劇 巨人街(全十一卷) 高田稔 德川良子 山縣直代

컬럼비아社特作全發聲日本版 快走船 스포스劇 兄님은世界一(全八卷) 우이리암、고리아、주니아氏主演 쪼ー마介紹

快走모다!쓰三에 스포스映畵!夏節에活躍하시는快走모다!보드運動家諸氏의絶對參考名篇인同時에趣味珍珍한大雄篇!!

入江프로高田프로合同特別映畵 仰!明澄大空에屹立할希望과情熱에주탑!斷然排劇을睥睨하야시ー스에玉座에君臨할感激에巨姿를보시요!

豫告 月よりの使者 入江たか子 高田稔主演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席二十錢 階下席十五錢

여러분의 鐘路五丁目 電光一三番

洋畵專門 浪花館

二十七日封切 映畵史上最高最大の燦然たる大記錄! 裝ひを新たに江湖の待望は否へて颯爽たる再登場日本版修最新版!洋畵專門館としての最終を裝る不朽の名作

上映順

一、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版 ノーマン、マクラウド監督 W・C・フィルズ ベビールロイ 共演 かぼちや大當り

二、朝日世界ニュース 六十五號

三、パラマウント超超特作日本版 ヨセフ、スタン、バーク監督 マルレネ、デートリッヒ ゲリー、クーパー 共演 モロッコ

熱砂の沙漠を渡る風にわ涙も憐憫もなかた唯ひたむきな情火を燗る灼熱のみだつた、茲に原版から新しく盛装成つた、新版を封切するに當つて今一度沙漠の彼方に想のオアシスを求めて去つた、アミイジョリイを想ひ出して戴きたい!!

次週九月一日より邦畵轉向第一回超特別大興行 松竹キネマ本年度二大作品の併映 雪え燕變化、夢うつつ

大正館

八月二十四日より特別公開 階下席十錢均一 超進大都の銷夏お名錢り名畵

大都映畵超特作現代映畵 ナツパ服四人組 原作 藤田潤へ、監督 服部眞砂雄 富士幸三郎 沖 明二 大岡怪童 若柳みどり 佐伯秀子 國子千枝子 共演

肉彈相搏つリングの熱戰カルネラ 拳闘界の王者總登場 デムプシイ・マックスベア等の世界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特作日本版 W・Sウアンダイク監督 世界拳闘王 マックス、ベア マーナーロイ プリモ、カルネラ ジャック、デムプシイ 共演

拳闘を賭してリングに火花を散らす大肉彈戰霸權は何處に壯烈悲壯の

大都超特作 大作龍三、撮影、笠間秀敏 阿部九州男主演映畫 名金天狗立山嵐(前篇) 本下雙葉 松村光夫 柏良雪 三城輝子 遠山龍之介 東龍子 共演 加賀十萬石の城下に突倒捲き起つた誰の罪か妖婦入れ亂れての大劍陣 美男劍士

優美館

八月三十日부터晝夜二回超特別興行 藝苑座第三回中央公演 基星만六十三名이모인大集團!! 劇界初有에驚異的記錄을突破할 朗鮮快한레뷰!와演劇!!朝鮮名物이다나오다

林生員 李福本 金元浩 孫一平 全景希 獨唱 朴晳玉 康福本 李承夏 金允心 諸君의幕間 總指導 金彪盛 演出 徐一星 李正順

家庭悲劇 毒草 全一幕 中銀鳳 徐一星 金彪盛 滿都婦女子들의感激의名戲曲!! 金彪盛氏勞心傑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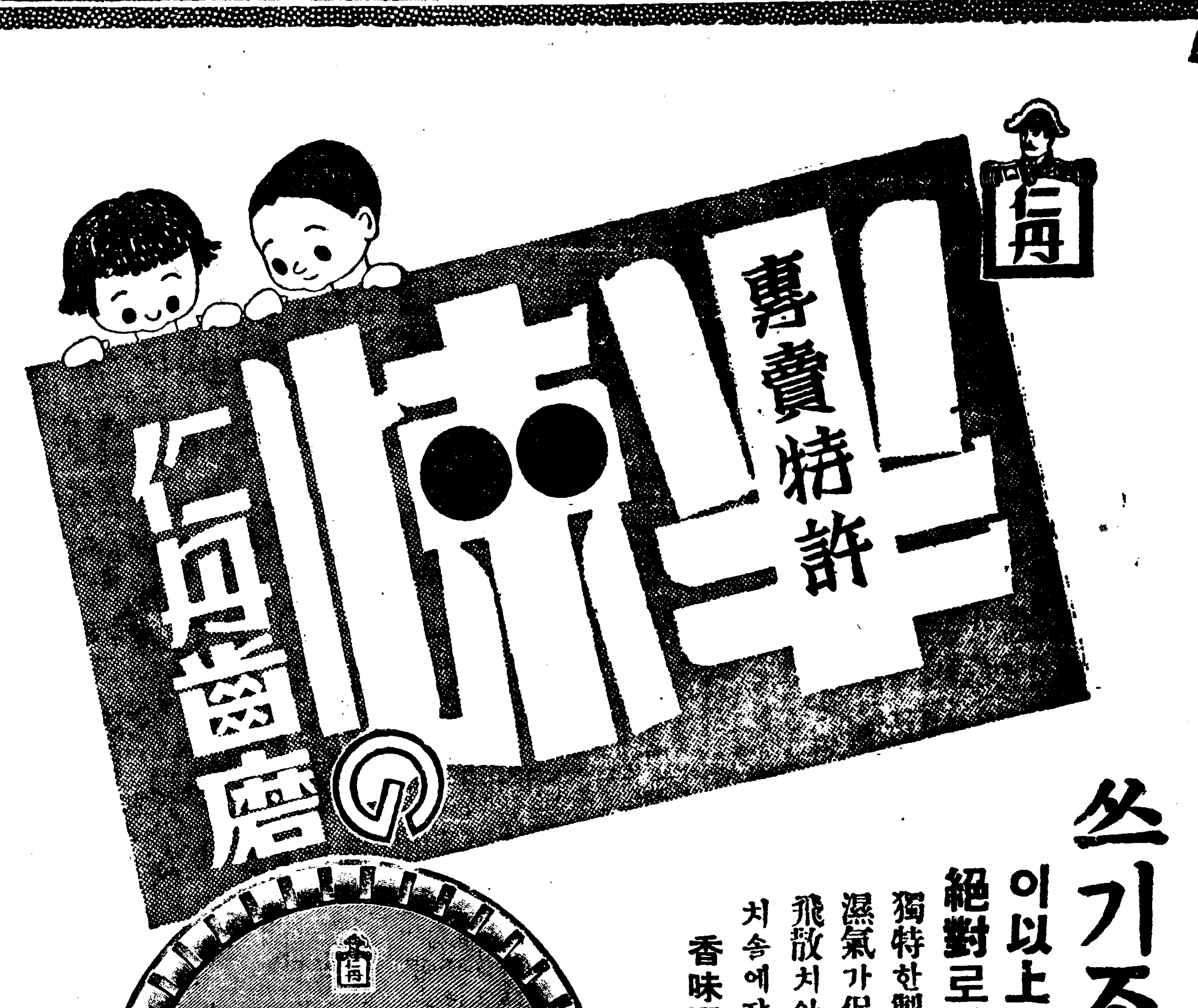
李瑞求氏傑作! 우슴의大王全景希 金元浩主演 大喜劇 家庭主婦敎育 全一幕 萬一、초상사재님이웃지안는다면正式裁判!

豫告 大레뷰 港口마다女子잇다 十景 悲劇 말못하는며누리 二幕 歌劇 郁子樹 一幕

貫鐵洞 電光三九五

大學先生도 はれやか 쓰십니다 (頭腦の榮養劑) ¥0.30 ¥0.50 ¥1.00

압흔痔에는 오세로 オセロ 痔疾藥 全國各藥店에잇소 ¥0.30 ¥0.50



쓰기조키로 이以上가는齒磨는 絶對로다른데업다

獨特한製造法에依하야適當한 濕氣가保存되고 따러서 飛散치안코 치솔에잘붓는 香味獨特한唯一特許齒磨

一罐二十錢

朝鮮水稻作況普通 千七百萬石豫想

兩湖旱災가相當하엿스나 全朝鮮的으로氣候가適順

◇……八月二十五日現在의狀況

【廿九日農林局發表】今年의水稻作況은 苗代初期에잇서서 降水가적고 또再三春冷으로 病虫害의發生이잇섯스며苗의生育이 憂慮되엇스나 五月中旬以後 天候順調로回復하고 適時潤雨가잇섯슴으로 苗의良好케되야 移秧도 當初에는 比較的順調로 進捗하엿다 그런대 六月下旬以後 忠淸南北道 全羅南北道地方에 降雨가적고 七月廿日現在 移秧未了畓六萬町步가 남어서 旣植畓도 近年稀見의旱害를當하엿다 西北朝鮮 地方에도 亦是 局部的으로 水害가 잇섯스나 全朝鮮的으로 이것을보면 氣候가大槪適順케되야 八月二十五日現在의作況은 普通인데 各道別狀況을보면 다음과갓다

道別	槪況
京畿道	普通
忠淸北道	稍不良
忠淸南道	普通
全羅北道	不良
全羅南道	不良
慶尙北道	普通
慶尙南道	良
黃海道	稍良
平安南道	稍良
平安北道	稍良
江原道	稍良
咸鏡南道	稍良
咸鏡北道	稍良
總平均	普通

備考

一、作況의 區分은 알에와가튼 標準에依함

▲良=普通作況에 比하야 增收一割을超過할豫想의境遇

▲稍良=普通作況에 比하야增收三分以上一割以內豫想의境遇

▲普通=普通作況에 比하야三分以內 增減豫想의境遇

▲稍不良=普通作況에 比하야減收三分以上一割以內豫想境遇

▲不良=普通作況에 比하야減收一割을 超過할豫想의境遇

二、作況이라고함은 作付反別의 增減에 關係치안코 다만作況의良否를 말함것이며 普通作況이라고함은 前五個年間에의 「中庸」의作況을 가리킨것이다

三、中庸에對하야 假計算하면 前五個年間 水稻一千七百萬石 陸稻二十二萬石으로 結局今年作이 普通임으로 今年米作은 一千七百萬石程度의 平年作을 豫想케되는것이다

今年米作은 理想的作況

▲……山澤農産課長談

朝鮮의 水稻作況은 今日發表되엇는데 大體 平年作으로 前五年間의 平均收穫인 千七百萬石으로 豫想되고잇다 그런데 今後十日間의 天候가 重大한影響을 가지고잇는데 念慮되는 颱風도 朝鮮省 通한模樣이고 天候가 激變치안는限 平年作은 念慮업다고생각된다 이에依하야 需給關係를 보면 消費豫想額은 日本內地七千二百萬石、臺灣四百八十萬石、朝鮮八百九十萬石、合計八千五百七十萬石이고 이에 對한 供給은 日本內地를 平年作으로假定하면 日本內地六千萬石、朝鮮千七百萬石、臺灣八百八十萬石 合計八千五百八十萬石으로 거이過不足이 업는 數字로되어 今年의 普通作況은 理想的이다

朝鮮內政府米拂下 農林局은不必要意向

拂下하면米穀商만好影響 消費者에게無利益

朝鮮內糧米가 顯著히 枯渴되야 朝鮮內에 拂下하여달라고 要望하는말이 相當한터인데 이에對하야 總督府農林局側의 意向은 다음과가튼 理由로 拂下의必要를 안늣긴다고 그다지 重大視치안는 모양이다 朝鮮內의 在米量이 前年에 比하야 적은것이 事實이다 그러타고해서 朝鮮內 糧米不足까지는 안이르럿고 다만 米穀商間에 所持米가 적음으로 拂下를 要望하는 傾向이 잇다 그럼으로 拂下를 한다고하드래도 結局은 米穀商의 所持米를 潤澤케 할뿐이며 또는 그로써 米價高가 緩和케될것도 아니다 그러고 今年米穀年度도 不過二朔이 남어잇고 또는 新米도 十月初로부터 나오게될것임으로 拂下의 時期가 아니다 라는 諸般의 事情으로보아 이에消的考慮를 加한후 二、三錢前後의 値上을 하리라고 보인다

朝鮮內米消費 一年八百九十萬石

一個年間 米消費量에 對하야 某處에서 調査計算한바에 依하면 朝鮮은 八百九十萬石 日本內地는 七千二百萬石 臺灣은 四百萬石에 該當한數字가 나온다는데 이것을가지고 今年 日本內地米가 六千萬石으로된다고 假定하드래도 朝鮮米가 平年作可能 豫想과 臺灣米가 잇슴으로 明年米穀需給은 別로窮乏을 늣기지안케될 것이라고한다

貸出增加가 最近에顯著

金組農村資金의狀況

朝鮮金組聯合會 七月末現在의預金貸出高는 預金一億一千六百三十四萬七千圓 貸出一億七千七十二萬四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二百五十七萬四千圓減 貸出四百十七萬圓 增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預金九百五十二萬九千圓 貸出二千八百八十八萬圓의 激增이엇는데 預金增加額에 比하야 特히 貸出이 激增한것은 農村更生資金 其他의 農村關係資金의 移動이 顯著히 活潑이된것을 말하는것으로 注目된다

六個月間 貯油不變,

實施期를延期

【東京電話聯合】國防上에 重大影響을 及하는 石油問題의 解決策에對하야서는 過般來 各省의 協議로 顯著히 進捗되엇슴으로 二十四、六、七의三日間에 亘하야 小委員會를 開하고 問題의 六個月貯油十月實施를 비롯하야 値上並 國庫補助에對하야 審議하고잇는바 陸海商工 三省協議에 意見이 大體一致되엇슴으로 商工省에서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商相官邸에 省議를 開하고 小委員會에서 決定을본 六個月의 貯油義務는 緩和치안코 그實施가 十月一日로 되어잇슴으로 適當히 延期함이 妥當하다는 大綱方針에 對하야 町田商相에 對하야 詳細說明한후 種種協議한 結果 右小委員會案을 承認하고 이에 要하는 豫算을 計上하야 一兩日中에 大藏省에 要求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이미 十月一日의 延期를 決定하얏슴으로 남은것은 値上問題인데 値上은 國庫補償과자못 重大關連을 가짐으로 이善後處置를 考究한후 値上에 關한 商工省의 態度를 明白히 할터인

殖産契令廿一條

金組下構成分子로活動

八月卅日附制令第十二號公布

問題의 殖産契令은 八月三十日付制令第十二號로써 公布하기로 되엇는데 契令은 本文二十一條로 殖産契의 目的機能이 規定되엇는바 大綱은 朝鮮內在來의 鄕約과 契의 精神에 이에協同組合의 指導精神을 加味한것으로 金融組合下의 構成分子로 活動하는것인데 그槪要는 如左하다

一、殖産契는 隣保共助의 精神에 基하야 契員의 經濟發達을 圖키 爲하야 共同의 事業을 營하므로써 目的으로한다

二、殖産契는 部落其他 이에準하는 地區內에 居住하는 者로써 組織하는 部落的小團體로 法人格을 有하다

三、役員으로서는 主事、副主事、監事各一人을 置한다

四、殖産契의 設立에는 道知事의 認可를 要하고 또 一般的監督도 道知事가 이에 當한다

五、殖産契는 반드시 金融組合에 加入함을 要하고 또 加入한 金融組合又는 産業組合과의 人的連絡을 密接히 하기爲하야 契의 監事는 組合의 理事로써 이에 充當한다

六、殖産契의 事業의 細目에對하야서는 制令에는 規定되지안헛스나 共同購入、共同販賣及 共同利用設備의 設置等이 豫想되다 그리고 信用事業은 行치안는다 但 契員이 金融組合의 組合員으로 組合으로부터 資金의 融通을 受하므로 無防하다

滿鐵資金計畫

社債發行限度擴張

【東京電話聯合】滿鐵社債引受씬지케잇트銀行團과의 懇談會에서는 大淵支社長으로부터 滿鐵十年度資金計畫의 北鐵委任經營의 結果 重大한 變更을 하지안코면안되게된 經緯에對하야 詳細히 說明하고 씬지케잇트側의 諒解를 求하얏슴으로 씬지케잇트側으로서도 事情이 不得已하다고 暗默의 諒解를 與한 模樣이다 卽 今年第一回의 滿鐵當局과씬지케잇트團과의 懇談會席上에서 滿鐵로서는 十年度의社債計畫은 一億四千萬圓程度로씬지케잇트團의 諒解를 어덧는데 그後 豫期치못한 北鐵買收에 依한 滿鐵의 委任經營이라는 新事態가 發生하야

(一) 北鐵의 改裝費

(二) 北鐵沿線都市公館의 整備

그他 滿鐵系會社의 拂込資金의 必要等으로 今年度 社債發行限度를 새로 三千萬圓增額하야 一億七千萬圓으로 하고십다는 旨를 披瀝하야 씬지케잇트側도 이를 諒解하얏다 그리고 滿鐵의 資金計畫은 今後北中의 經濟開發事業을 압두고 더욱擴張하리라고 보이는바 十一年度以後의 資金計畫에對하야서는 近近 松岡總裁가 渡東하야 다시 씬지케잇트 代表를 招待하고 說明을 行할터이다 그리고 今年度 社債發行一億七千萬圓中 第一回의 三千萬圓은 씬지케잇트銀行團이 引受하고 第二回分二千五百萬圓은 簡易保險이 引受하야 各히 發行되엇는데 目下 씬지케잇트團의 對滿鐵前貸金이 二千萬圓에 達하고 廿九日 다시二千四、五百萬圓의 前貸를 行할 豫定임으로 九月初 第三回分으로 三千萬圓이 씬지케잇트引受로 發行될模樣인바 右는 前回同樣 利率四分三厘 따 期間十三個年이 妥當하다는 意見이 有力하다

▲社債引受團協議

【東京電話聯合】滿鐵에서는 二十八日正午 丸之內의 社宅에서 社債引受씬지케잇트代表者를 招致하고 滿鐵側으로부터 大淵東京支店長이 出席하야 十年度事業計畫에對하야 種種 懇談하고 씬지케잇트團의 諒解를 求하는바 잇섯다

朝鮮內政府米在高

玄米卅二萬九千餘石

◇……正租七萬四十二石九斗

朝鮮內糧米不足이 深刻하야 政府米의 朝鮮內拂下要望이 만흔터인데 大體朝鮮안에서 그동안얼마를 買上하엿고 얼마가 지금 남어잇는가를 調査해보면 알에와가다

昭和八年産米買上

▲第一回 八年十二月十四日 玄米 一三三九、六四七石四斗 正租 二七、九一四石三斗

▲第二回 九年一月十一日 玄米 四五八、二二〇石 正租 四二、一二八石六斗

▲第三回 九年一月三十日 玄米 四九九、七四九石八斗

▲第四回 九年四月二日 玄米 四二〇、二五八石

以上合計는 玄米百六十一萬七千八百六十四石八斗、正租七萬四十二石九斗인데 其中玄米四十三萬二百五十八石은 日本內地에서 受渡할것임으로 實際로 朝鮮內에서의 買上은 玄米百十八萬七千六百六石八斗와 正租七萬四十二石九斗이엇다。以上의買上에 對하야 政府米拂下는 어떠하엿느냐하면

▲第一回 九年八月十五日 玄米 三九四、五〇四石八斗

▲第二回 九年九月一日 玄米 三三七、七五六石八斗

로合計가 七十三萬二千二百六十一石六斗이엇다。그럼으로 買上數量에서 拂下數量을 減하면(正租는 그대로잇다) 玄米四十五萬五千三百四十五石二斗가되어야 하겟스나 이는 買上決定數量에서 拂下數量을 減한計算으로 實際로는 玄米三十七萬九千八百五十五石二斗가되며 또 그中에서 五萬石은 日本內地로 輸送하엿슴으로 지금朝鮮內에잇는 實際의 政府米는

▲玄米 三十二萬九千八百五十五石二斗

▲正租 七萬四十二石九斗가 잇는터이다。

朝鮮米販路蠶食

良質의蓬萊米가

蓬萊米의 日本內地進出은 最近 品質改良의 徹底普及과 生産費低의 有利한條件으로부터 朝鮮米의地盤을 蠶食하는 傾向이어서 各方面에서 蓬萊米進出當注目하는터인데 新穀期에 드러가 以降 改善이되엇것이엇지만 新品種育成에는 遺憾點이 자못 만허 穀良과가티 十數年來의 品種으로 蓬萊米와 比較할때 朝鮮米의 現狀은 改革할必要가잇다한다

商況 二十九日

株式 小幅圈內 揉合

前場鈍重 今前場은 買氣不振하야 東新一圓二十錢低인 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産七十錢低인 七十五圓七十錢 大新一圓低인 八十七圓丁 朝新二十五圓七十錢에 不勢寄後 少戾하야 東新二圓丁日産六圓二十錢 大新七圓五十錢 朝新五圓七十錢大引

▲東新 一四一五〇(一四〇七〇) 一四二二〇 一四二〇〇(引)

▲日産 七五七〇(七五七〇) 七六〇〇 七五七〇 (引)

後場小高下 後場은東新百四十二圓九十錢 日産七十六圓三十錢 大新八十八圓八十錢 朝新二十五圓八十錢 帝人百二十四圓二十錢에 各好勢寄이엇스나戾

揉合으로氣迷 秋高? 秋落?

反撥市勢에入한後 八月二十二日에 東京短期東新 百四十四圓二十錢 日産七十八圓七十錢에까지올느고나서 머리가 묵어워서揉合이더니 今前場은 東新百四十圓七十錢、日産七十五圓丁에 下押되고 東新百四十二圓二十錢日産 七十六圓丁으로 更强이엇는데 이市勢를果然어떠케 보아야可할가?大體세가지로 分類할수잇스니 卽

▲訂正高一巡=過度히悲觀하야 팔엇던反動이 前週까지의 反撥이엇다。그럼으로 이것을單純한訂正高의 程度로볼이 可할것으로서 東新으로말하면 六月十九日의 東京低價 百三十一圓七十錢에서 十二圓五十錢反、日産은 六月四日의 六十九圓九十錢에서 十八圓八十錢反가잇섯스니 反撥으로는 이程度로서 充分하다하야 高價期待가업는一面 새삼스러게 悲觀할것도업스니 큰崩落도업스리라하야 上下間無期待의 揉合으로보는것이고

▲秋高期待=이미모든不安과모든惡材料는 二、三年뒤의일까지 市勢에 織入하고 팔엇섯스니 訂正高가 잇섯슴으로 當然한일이오 軍事費膨脹 低金利繼續、貿易悲觀無用 日中關係親善 歐洲風雲險惡 米國景氣好轉等으로 보아 人氣에淸新味를 加케되고 共히 年年押壓되엇던 實物이 秋高必然을 可期라하야 秋高必至를 主唱하는强氣가잇고

▲大底末丁=이번에야 겨우陽轉이라고 사러가는 永續性이업서 짤으면數日 길어야旬日만에 再逆轉되고 實期된 쓰라린 經驗을 가진이니 여간해서는 人氣陽轉이 至難할뿐아니라 强氣가 期待하는 好材料란것이 하나도 具體的으로 好勢를 줄만한 程度에 至치못하얏스며 그넘어 可望도업다。日中親善이란것을 어니程度까지 미더야可할것이며 歐洲戰爭勃發이 꼭잇슬것이오 開戰되면 반드시 日本에 有利할지 新定이 어려웁고 貿易圈도 더 두고 보아야 큰소리를 하지 簡單히 樂觀할것이 아니며 低金利、軍擴景氣等이 新規買를 促할것이 아니고 後算編成問題 地方選擧問題等이 걱정거리잇슬뿐아니라 全般的으로 投機資金이 涸渴되어잇스니 秋高는커녕 失望低落이 十中八九이겟스며 東新가튼것은 이 豪華리!드時代를 지나서代表株資格을 喪失하얏슬뿐아니라 雜株暴落時代에 안떠러젓고 全히 底入되지안헛다 불수잇스니 東新은 더구나 大底入을 기대려야 할것이라는 弱氣論이잇다

欲伸難伸商情

豫算編成難!

實物로押壓되어 反撥不勢程大引 秋高를必期하는强氣로서는 勇往邁進하야 買煽하고십기도하겟지만 여러번속은經驗이잇는지라自信잇게덤비지를못하고 一方으로는 米國財界가 「人氣」를의急落으로보아 景氣前途를 다시考慮케함이잇고 또國內의明年度豫算編成에 大藏省態度에 海軍省이 不滿하야가지고잇는等形勢가 注目할만한데 一層氣氛을 陰鬱케함이 不無하고 倫敦市場의 七磅暴落의 不勢로 日鐵에도자미업고 日産에까지도 그影響을주고잇는等에依하야 이것저것으로 市勢는欲伸難伸이며 軟派는 屈一巡의反落을 期코잇다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〇一	一〇低
大阪期米	先限	三一六八	一九高
仁三等米	一石	三一五〇	三〇高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一圓十八錢	十一圓五十五錢
銀	[illegible]厘	[illegible]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二五八〇	一〇高
東新	一四二〇	七〇低
日産	七六〇〇	七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二〇高
大阪棉花	五五五	三五低
大阪人絹	[illegible]	三〇高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	三九〇〇 先三九〇〇	

期米 當限暴騰 好勢

前場反弱 昨後場 阪地三十二圓四十九錢止와 共히 二十八圓四十四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三十六錢인 十三丁反落을擬하고 二十八圓三十五錢인 九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 稍漸高調로 五十五錢까지 跳返하엿다가 五十一錢에 止場함을 作하야 二節 三十錢으로 四丁四錢까지 小反하엿다가 結局 三十八錢에 輕弱히 場을止하엿다。

後場當限高 後場은 二十八圓三十四錢에 四丁低로 始場後五節四十七錢에 反强이잇스며 當限은 五節三十一圓四十錢에 暴騰되어 別欄가티 止場하다

颱風의被害와 今後大勢一考

颱風은 昨夜 瀨戶內海를 通過하야 今朝兵庫縣附近에잇서서 中國、四國、近畿地方은 아직 暴風雨의곳이 多하다 颱風의中心示度는 七百三十六耗로 그勢力이 幾分弱하여젓스나 北東으로 進行하야 東日本을 橫斷하게될으로 豫想되며 北海道西方에는 副低氣壓이 發生하야 北陸과、北海道地方에는 降雨가잇스며 東北地方은 暴風으로 도어며 兇作의 現象을 招來할지몰으는 此際에 颱風의 被害가 多少하다하야 實質成하는 것은 後日의 把握할것이라 自然的이아닐까한다 本月十五日 現在의稻作況調査인 平年作發表는 比較的 樂觀을 못한엿스나 그러나 그調査가 끗난後의 秋田、靑森、岩手等 三縣의 水害와 今回의 九州、四國及其他地方의 被害가 不少할것을 豫期하야 今後大勢는 漸次로 被害調査에 딸아 昂騰하지안흘가 한다。

當地더욱伸悩 地場實贊成으로

後場의 人氣로 又復一段高價를 示할뜻하든 市勢는 今朝 阪地는 三十圓三十六錢인 十三丁反落으로 場을 始하고 當地는 九丁反落으로 場을 始한後 阪地는 昨日의 高價인 五十錢을 上廻하엿스나 當地는 意外伸悩狀態를 뭇한다。要하면 當地는 諸家의 買物이 緩慢한 그反面에는 地場側이 擧皆 實贊成을 하고잇는 關係上 容易히 高價

市場六感

株 今前場 東京短期는 東新百四十圓七十錢 日産七十五圓丁에 떠러젓다가 다시反高大引 ▲말하자면 갈팡질팡 揉合이기때문에 秋高? 秋落? 大保合? 速斷을 不許하야 氣迷가深甚 ▲强弱을 알수업는 揉合이라 十圓幅의騰落은 꿈에도 바랄수업고 所謂大勢論으로도 高價얼마低價얼마라고 제법내세울程度의것이 못될모양▲十餘年 明治町에서 쓰듯 단맛을 다 맛본 어떤구로도 歎息하되 「더러운놈들이 손우바를하니가 이모양이지……」▲이친구의더러운놈들이란 東京行井等의小策小利者를 指稱함인듯▲그前가튼 投機性이아니라 東新에서는 投機性이 업서젓고 지금이 投機時代가아닌것을 먼저 알어야 올켓지!

米 ▲七百廿八耗의 强力을 가지엇든 颱風은 七百三十六耗로 減殺하여젓다고 그러나 七百三四十耗도또한 優勢▲그런데 颱風到處의 被害가 그얼마인지 市勢에는 別被害가 업는것처름 그伸力이 遲鈍▲그러나 今後調査에딸아 被害의程度를 可히알수잇거니와 近年의 市勢行動이 颱風이지나간後에 易騰하는것을記憶해둘일▲阪地市勢도 伸力이遲遲하거니와 阪仁의 鞘가 於當間 二百十餘丁으로擴大▲當地先限은 地場의 實贊成한데다가東京山種一派가 當地金太店을 通하야 賣繫한石數가不少하다고 한다▲此仕手의 關係로보아서는 容易히 高價를 許하지안흘뜻하나 그러나 堂島市場은 當地의 正反比로 田中貞 高橋一派가 絶對買贊成을하고잇다 阪仁今後의 決戰이 果何如?▲何如間 今年의米作은 平年作도못될모양이니 押目買의方針으로 勵進하는것이得策일모양

有力側 田中、高橋等의 猛烈買占함을 보아서 大陸買方의 勢力이 優越할뿐아니라 颱風의 被害가 相當할것을 示하고야 말것갓다。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illegible]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各地當限受渡高

	受渡高	價格
大阪	一六二〇〇	三二二〇
神戶	三五〇〇	三一〇〇
東京	三四〇〇	三〇九〇
大邱	四三〇〇	三〇一〇
釜山	四〇〇〇	三〇四〇
下關	五〇〇	三一三〇
群山	六一〇〇	三〇二八
木浦	一四〇〇	三〇七〇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 中東側 東京側 ▲買方 田中貞 地場高橋爭擔

各地正米

京城底堅 買氣旺盛하야 定期의 漸高로 氣配가 更히 廿錢引締이어 仁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卅圓五十錢 一等白米卅二圓五十錢

仁川續騰 颱風被害로 期米高이오 續騰하야 唱은二十錢反撥이나마 賣物薄으로 人氣活況 閑散商狀인 丸仁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十錢

釜山保合 所持側이 頑强態度이오 原料로 四七段의 取引이잇섯스나 氣强한 市況으로 依然散漫 角ㄱ三等 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群山一息 産地所持側은 賣物을 攤棄하나 日本內地의買氣가 消極的인만큼 商談이 極히 不圓滑한 菱ㄱ三等三十圓六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大邱閑散 月末接近이니 取引이 적고 市況은 沈滯한 終始된 角ㄱ三等 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木浦焦付 依然所持의强硬態度를 不改하고 定期高로 買氣가잇스나 全然取引不能에陷하야 丸木多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雄町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不變 産地糧米不足으로 買氣가잇스나 賣物皆無로 依然取引停頓狀態로 推移되어 丸ナ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丁 一等白米十三圓十錢

大阪三品市場休會

大阪綿絲、棉花、人絹의 三市場은 當限受渡로 今日後場부터明前後場共히 休會이다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九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九日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絹布 ◆日本麥粉市勢 ◆카코期麥 ◆綿油冲價 ◆大連特産市勢 ◆滿洲商況 ◆豆粕冲價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砂糖 ◆橫濱生絲 ◆各地人絹 ◆海外砂糖 [illegible]

株式 廿九日

◆朝取短期 ◆鐘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 ◆東京短期 ◆東京長期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廿九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一六九三 一二六五

金.銀.白金 歷代販賣買引金代 文注方地 金先料送要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明治町

株式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丁目

期米 吉村取引店 [illegible]町三